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숲의 전령 ‘사무엘’

(Woods Runner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홍 세 민

2017年 7月



# 숲의 전령 ‘사무엘’

(Woods Runner·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홍 세 민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7月

홍세민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㉞

위 원 \_\_\_\_\_ ㉞

위 원 \_\_\_\_\_ ㉞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年 7月



# Woods Runner

Sae-min Hong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ul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숲의 전령 ‘사무엘’

지은이 게리 폴슨  
엮은이 홍세민

## 작가의 말

저는 이 책을 저의 다른 역사 소설과는 다소 다르게 써왔습니다. 허구적인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부분들로 바꿔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혁명전쟁의 더 큰 맥락을 배경으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설정하고 싶었으며, 둘째로는 돈도, 전기도, 마을도, 이웃도 거의 없던, 단지 자신의 힘 말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당시의 국경지대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 목차

제1부	
1776년의 숲.....	4
제1장 .....	5
통신 .....	10
제2장 .....	11
국경의 삶 .....	13
제3장.....	14
제2부	
피의 전쟁 -1776 .....	16
무기.....	17
제4장.....	18
미국군 .....	21
제5장 .....	22
영국군 .....	25
제6장 .....	26
세계 .....	29
제7장 .....	30
전투.....	32
제8장 .....	33
부상.....	34
제9장 .....	35
미국인의 정신.....	40
제10장.....	41
헤시안 .....	45
제11장.....	46
제3부	
뉴욕 - 1776 .....	52
전쟁고아 .....	53
제12장 .....	54
민간인 사망률 .....	57
제13장 .....	58
뉴욕.....	62
제14장 .....	63
비밀통신 .....	67
제15장 .....	68
민간인 첩보 .....	73
제16장.....	74
영국의 죄수들.....	79
제17장.....	80
전쟁 포로의 처우.....	84
제18장.....	84
영국인의 행동.....	90
제19장.....	91

## 제 1부

### 1776년의 숲



## 제 1장

숲의 아이가 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사무엘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소년이 11살이었을 때는 허드렛일을 돕거나 오두막 주변의 흙을 가지고 놀았고, 13살이 되고 나서는 40구경 펜실베니아 화승총을 들고 다녔다. 그을려진 녹비 천을 둘러 입고 모카신을 신었다. 집에 가져갈 고기로 사슴을 추적하노라면 물길을 관통하는 칼처럼 숲속을 누볐다. 소년이 사슴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냥길 옆에 앉아서 사슴을 기다렸다. 사슴소리와 수풀이 우거진 가지,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바람이 불어와 수사슴 오줌냄새나 사향 냄새가 났다. 사무엘은 소총의 화약을 재어 놓고, 소년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고 느긋하게, 눈과 코와 귀는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고요했다. 소년의 몸 구석구석이 정지해 있었지만 집중할수록, 격렬해져 갔다. 그리고는 소년은 자신의 삶을, 두 세 상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다.

때로는 그 두 세계로 뛰어들게 하는 경계가 자신의 오두막을 바로 거쳐 지나간다고 사무엘은 생각했다. 기름진 양가죽을 종잇장처럼 얇게 펴서 만들어낸 작은 양피지창문 넘어 서쪽에는 숲이 있었다. 숲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했고,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롭고 어두운 곳이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어른도 서쪽으로 한 달을 걸어, 빨리 걸어도 높고 무성한 잎들 뿐 절대로 해는 볼 수 없을 거라 말했었다. 12에이커의 아주 작은 오두막과 기울어진 헛간으로 겨우 이루어진 농가 아주 가까이에서 조차도, 여름이 되면 숲이 너무나 울창해져서 사무엘이 십이나 십오 야드가 넘는 거리를 들여다 보는 것은 불가능 했다. 지름 4-5피트에 매우 높은 몇몇 참나무나, 느릅나무, 단풍나무들이 잎이 두텁게 덮여 있어 그 높이를 겨우 짐작할 수만 있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이라.

사냥용으로 만들어져 토박이나, 이주자들이나 덧 놓는 사냥꾼들이 이따금씩 이용하는 숲길도 있었고, 굽이지고 방랑하여 사냥을 제외하고는 실용적으로 쓰기에 불가능한 길도 있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숲을 가던 때는, 그렇게 많은 거리를 가지는 못했다. 처음 갔던 그때에 사무엘은 가벼운 펜실베니아 소총과 마른 화약, 쓸 만한 칼로 무장을 했어도, 자신이 낯선 세계 에 와 있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다.

인간으로서 소년은 숲과 어울리지 못했다. 흙과 풀과, 잎사귀를 돌보듯 사람을 돌보는 곳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길을 잃지 않았다. 걷는 내내 나무마다 칼로 표시를 해두었던 터라 나오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소년은 여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조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일부분이 그 거친 곳으로 사라져 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란 느낌이 들었다.

사무엘은 어떤 남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었다. 덧을 놓거나 사냥을 위해서,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지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숲으로 사라져버렸지” 사람들은 그 남자들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소년이 아는 몇 사람들도 죽었다. 사고로 죽거나, 팬더나 곰, 혹은 인디언들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죽은 시체들을 본 적 있었다. 곰에게 처참하게 당한 한 남자는 쟁기질을 하는 동안 자기 말을 공격한 그 놈에게 머리를 먹혔다했다. 다른 한명은 화살이 목을 관통하는 바람에 죽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살과 활을 이이용해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쏘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 소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진흙 벽돌로 만든 안락한 난로가에 앉아 있으면, 곰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마치 미쳐가는 여자의 울부짖음 같았다.

‘아,’ 소년은 숲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은, 먼 친척인 이쉬멜 삼촌과 함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삼촌은 자신의 어깨 너머로 괴물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듯 쳐다보며 이야기 했었다.

“숲에서 나이 들어 죽는 건 없어. 벌레도, 사슴도, 팬더도, 곰도, 심지어 사람도. 충분히 오래 살았지, 천천히, 충분히 여물 때 까지, 그리고는 너를 삼켜버리지. 모든 것이 죽는 거야.”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그 숲이 좋았다. 마음 속 소년만의 뜰에서만 보이는 소리와 냄새, 이미지들을 알고 있었다. 숲 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때 까지 나무마다 칼로 더 많은 표시해 두었다. 소년은 그 깊은 숲을 자기 집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유로도 사라지기도 했다. 숲이 그들을 끌어들이면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은 그들을 놔주지 않았다. 사무엘이 10살이었던 3년 전에 이 사람들을 본적이 있는데, 그 중 한 남자는 연기처럼 움직였고, 소총을 자기 팔 움직이듯 쏘았다. 몽툰한 날로 된 칼 바로 옆 혁 띠에 사이에는 도끼가 있었고, 모든 것을 보는 눈과 귀를 가졌다. 정착민 중 한 가족이 가게 용도로 쓰는 공간 하나가 오두막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곳에서 어머니가 실을 사는 걸 기다리면서 그 남자가 들어와 천 조금과 화약과 자기 소총에 쓸 영국산 부싷돌을 사는 것을 보았었다.

남자는 깊은 숲의 기운이 느껴졌고, 연기와 피와 윤활유 냄새, 그리고 원기 왕성한 기운을 풍겼다. 이 낯선 자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기다릴 때에도 그는 움직였다. 그가 예의를 갖춰 사람들에게 목례를 하긴 했지만, 자기 총에 쓸 물건들과 소금을 챙기고는 떠나버렸다.

그는 잠시 그 곳에 머물렀다 바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무와 잎사귀, 동물들처럼 숲의 일부가 되기 위해 부드러운 모카신을 신고 소리 없이 서쪽으로 가버렸다.

사람들과 집들, 부락을 떠나 멀리 멀리 갔다.

사무엘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왼쪽으로 눈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와 나무 옆 귀가를 괴롭히는 벌레를 쫓으려고 애쓰던 진드기가 우글대는 토끼를 돌봐주고 보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무엘은 웃음이 났다. 엄동설한에도 토끼들은 몸에 붙은 해충을 없애느라 분주했었다.

그 광경 때문에 소년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숲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셨

고 사무엘에게 숲으로 데려가 달라했었다. 둘은 그리 멀리 가지 못했는데, 500야드도 채 못가서 빈터 끝자락의 빛도 뚫고 오지 못하는 키 큰 오크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다. “돌아가야겠구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따뜻한 여름임에도 어깨 주변을 솔로 짝 감싸 메며 말씀하셨다. “여긴 너무나 어둠 침침 하구나. 공기는 상쾌해도 너무나 어두워서 갇힐 것만 같구나. 가야하겠다 어서.”

비록 부모님은 황야에 살고 있었어도, 그들은 숲에 익숙하지 않았다. 두 분 다 마을에서 자랐고, 읽고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도 다녔다.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그들은 서쪽으로 이사를 왔고, 힘든 육체노동과 사색이 있는 고요한 삶에 당신 자신들을 바쳤다.

부모님은 사무엘에게 당신들도 마을에 섞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도로가 있고 집과 마을이 있는 세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두막 속 상상의 경계의 동쪽은 부모님이 말씀하던 문명이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떠나온 혼돈의 마을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떠들썩함이 있었다. 대장간에선 시끄러운 망치 소리가 들려오고, 닭들이 울고, 개가 짖어대고, 소와 말이 울어대며 사람들은 늘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숲에는 없는 떠들썩함이었다.

난방과 냉방을 하느라 계절마다 나무 타는 냄새가 대기를 채웠는데, 오랜 시간 불을 피울 때는 오크나무 냄새가, 짧고 굵은 불을 놓을 때는 소나무 냄새가 났다. 빵 굽는 냄새도 났는데, 이따금씩 운이 좋아서, 꿀이나 자루에 넣어 부셔먹을 수 있는 얼음 설탕이 생기면 달콤한 파이 냄새도 났다. 바람이 연기를 움직일 때면, 벽난로에 매달린 쇠 주전자나 무쇠 솥에서 끓여지는 스투 냄새가 굴뚝을 통해 흘러 나왔다. 마을 사람들과 사무엘네 농장에서 기르는 말과 소, 닭들의 분노 쌓인 싸한 냄새가 났다. 그 조그만 마을에는 바람에 여러 냄새가 소용돌이 쳤다.

팬실베니아 서부의 언덕에 자리 잡은 그 마을의 계곡은 커다란 사발 모양처럼 보였다. 13살 사무엘과, 늘 이해하진 못했지만 소년이 사랑하는 그의 부모님, 아버지 올린, 어머니 아비가일, 그들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부모님은 소년에게 수상작 외에도 바깥 세상에 대한 책도 읽어 주셨다. 수지 양초가 타오르는 긴 겨울밤, 사무엘 가족은 난로가에 둘러 앉아 서로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처음엔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읽어주면 소년은 듣기만 하곤 했다.

나중에는 혼자서도 읽었고, 책 속의 언어유희도 알게 되었다. 소년은 집에 있던 모든 책을 읽었고 나중에 그 골짜기의 다른 집에서 빌려온 책들도 읽었다. 소년의 상상과 꿈속에만 있던 세상에 대해 점점 더 알 수 있게 되었다.

먼 동쪽의 세상에는 거대한 도시들과 대양과 유럽, 고대 로마와 암흑기의 아프리카,

아시아의 신비한 땅, 그리고 외국어를 하는 많은 사람들과, 낯선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동쪽에는 윤이 나는 신발이며 화려한 옷가지와 틀에 박힌 예절, 어마어마한 부유함도 있었다. 어머니는 소년에게 런던과 파리에 있는 고급 살롱이나 저택에서 춤을 출 때면, 교양 있는 남성들은 세심하게 힘을 준 가발을 쓰고, 은색 코담배갑을 꺼내 들었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솜털로 휘감겨진 새틴과 비단 가운을 차려입는다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사슴이 한발 앞으로 나왔다. 30야드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것의 완전한 옆모습이 보였다. 사무엘은 숨을 죽이고 사슴이 돌아서기를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소년은 총을 들어 공이치기를 쫓았다. 가능한 조용하게 들어 올려 멈춤 쇠를 조심스럽게 당겼다. 소총에는 방아쇠 두 개가 있었는데, 세트 트리거는 앞쪽 방아쇠인 두 번째 방아쇠를 활성화시키는 용도로서 매우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어 덤불 하나에도 공이치기가 발사되어 버렸다. 소년은 손가락을 세트 트리거에서 움직여 바로 옆에 두었다. 촉발 방아쇠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앞 가늌쇠의 독일산 은색 날을 뒤쪽 조준구의 작은 눈금에 두었다. 새끼 사슴이 어깨 바로 아래에 맞춰 질 때 까지 날 가늌쇠의 끝을 띄웠다. 0.5초, 아니 0.25초가 지났을까. 사무엘은 촉발 방아쇠에 손을 댔고, 공이치기가 떨어졌다. 부싷돌은 쇠 프리젠을 굵으며 뚫고 나와 약실에 있던 화약 위로 불꽃을 흩날렸다. 점화를 일으키며 소총의 총열 측면에 있는 점화구로 열풍이 불어 넣어졌고, 발사가 시작되며 40구경 탄환이 구경 아래로 회전해 나왔다. 사슴이 소총의 소리를 듣기도 전에 탄환이 그것의 심장을 지나 반대편 쪽으로 뚫고 나왔다. 사무엘은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 찰나를 기다리고, 일 초를 기다렸다. 또 1분을 기다렸다가, 또 한 마리가 보였다. 사슴은 몸을 돌려 소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슴의 근육의 경련이 격렬해 지면서, 곧바로 공중으로 뛰어 올라 달리기 시작하더니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사무엘은 사슴에 집중하지 못했다. 줄곧 동쪽에 있는 그들이 문명이라 부르는 것에 빠져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소년은 공이치기를 멈춤 쇠에 안전한 위치로 새겨 놓은 첫 번째 홈까지 느슨하게 풀어 놓고서는 아래로 내려 놓았다. 이상하게도, 화로 가에 가져가 구워 먹지 못하는데도 소년은 실망스럽지 않았다. 많으면 하루에 열에서 열다섯 마리도 잡아봤다. 너무 많아서 전부 고기로 먹지도 못했다. 사슴들이 옥수수 밭을 헤집고 다녀서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이따금씩 쫓아야 했다. 대부분의 집들이 사슴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사슴고기는 누린내가 나고 질길 뿐 아니라 종종 기생충도 붙어 있었다. 그들이 즐겨먹는 것은 곰과 비버 고기였는데 그 맛이 더 풍부할 뿐만 아니라 덜 질기기도 했다.

이 사슴을 사냥했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거의 2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그 마저도 없다.

소년은 동쪽 너머의 존재들에 대한 궁금증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세상은 더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 있기에 국경지대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일 것 같았다. 그렇다 해도 사무엘이 그날 밤 배운 것은 겨우 세계에 대한 추악한 진실일 뿐이었다.

지식과 지혜가, 자애와 부와 교육이 충만한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은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광기에 사로 잡혀 있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무엘은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카신이 닳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나마 뒤꿈치가 닳기도 전에 한 달에 한 켄레씩 생겨서 사무엘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크게 힘 들이지 않아도 몸이 움직였다. 숲을 통과해 가면서도 눈과 귀는 놓치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아직도 그 날 밤 종이 한 장을 건네 온 그 남자에게 가 있었다.

## 통신

1776년, 어디든 삼사십 마일이 넘는 거리를 여행하는데 가장 빠른 수단은 배였다. 일정한 바람 덕택에, 항해하는 배는 일이백 마일을 몇 주 동안 달릴 수 있었다. 말도 오랜 이동으로 쇠약해지지만 앓는다면 하루에 삼사십 마일을 소화해 낼 수 있었다. 기껏해야 마차들은 백 마일을 달릴 수 있었지만, 도로가 양호한 상태였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 거의 불가능 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이 삼십 마일을 단시간에 더 빠르게 걸을 수 있지만, 땅과 날씨, 발걸음의 상황에 따라 달랐다. 하루에 십오 마일이 기본이었다.

그렇게 그 시대에는 전보나 전화, 인터넷, 문자, 당일 배송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기에 빠르고 믿을 만한 방법이 없었다.

십여 마일을 움직여야 하는 중요한 행사의 소식도 여행자가 걸어서 전달하는데 오 육일이 걸렸다. 부락이 12마일에서 15마일까지 떨어져 있었고 소식은 글로 쓰여 사람 간에 전해졌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소문으로 공유되었다.

## 제 2장

그날 밤, 사무엘이 숲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숲의 노인 이삭과 부모님께서 차를 들고 계셨다. 이삭 아저씨는 사냥을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소년네 집에 들르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새 소식을 전해왔다. 메사추세츠의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군대가 영국군에게 불을 놓고 물리친 싸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전투는 몇 달 전에 있었는데 177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삭은 낡은 가죽과 형걸 조각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대머리에다가 닳아 버린 모피 패치가 달린 추레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동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오두막에 몇 년 째 살고 있었다. 너무 숲과 가까워서 자기네 집을 잠시 방문하는 것에도 사무엘은 불편함을 느꼈다. 소년은 소가 끄는 마차가 자기 집 근처에서 보이면, 국경 더 멀리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 식구들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농장으로 쓸 땅을 좀 찾아보았고, 이삭 아저씨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을 골랐다.

“가족은 집단이지. 내가 사람이 많으면 특히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사 가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단다.” 이삭이 말했다.

그가 살았던 작은 판잣집을 떠나면서, 식구들은 사람들의 손이 많이 타서 부드러워진 된 종잇조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만난 동료 여행자들과 소식을 공유 할 수 있었다. 동료 여행자들은 길을 가다 듣게 된 다른 일들에 대해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들이 열 닢 마리 씩 몰려다니는 청어 떼처럼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질 떨어진 화약처럼 혼란스러워졌고 내 기억력은 예전 같지 못하지만 그들이 벙커힐이라 부르는 곳에서 또 싸움을 했고, 애국 민병대는 그곳에서 얻어맞고서는, 영국군의 총에 달린 총검을 보고 급하게 도망쳤다 했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소나무 잎을 우려낸 차를 마시면서 앉아 있었다. 그는 감기를 낳게 해준다고 장담하면서 그 차를 더 좋아하곤 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차균요. 감사 하지만 사양합니다. 부인.”

그가 사무엘 아버지에게 건네 준 종이는 너무 자주 접혔다 펼쳐져서 거의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였다. 종이는 나무 블록 글자가 있는 투박한 기계로 인쇄되었고 얼룩져서 읽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렉싱턴과 콩코드에서의 싸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총을 쏘는 몇 사람과 총을 맞고 땅에 나가떨어지는 몇 사람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사무엘은 아버지 손에 들린 종이를 열심히 살펴보고 나니 자기 세상 속 모든 것들이 더 커져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락씨네와 오버톤즈네 식구들은 마차를 멈춰 세웠다. 이삭이 사무엘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올린이 그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듣고 싶어 했다. 사무엘은 숲 끝자락에 있던 작은 오두막을 살폈다.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서더니, 전투의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단단하고 큰 장벽은 더 이상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무엘의 부모님이 국경지대로 이주해 오며 도망쳐온 그 시끄러운 바깥세상은 그들을 찾아내고 말았다. 사무엘은 흥분되고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압도되기도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비니저가 사무엘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침 식사 마다 집에서 담근 맥주를 12온스씩 마신 탓에 올린의 얼굴은 사과같이 붉고 둥글어 보였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 일거야. 보스톤에서의 작은 싸움이었겠지.” 사무엘의 아버지가 말했다. “폭동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겠지. 도시에서는 민중 선동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영국군 전체와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올린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덧 붙였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육군과 해군이 있어. 그러니 미치지 않고서야 농부 패거리가 군인하고 싸우겠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냥하고 세심한 해리스 씨가 말했다. 아내 클라라는 앉아서 젓을 먹고 있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린 이곳에서의 생존에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거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벽난로에서 불타는 소리만 들려 왔다. 편안하고 아늑한 이 오두막에선 동쪽에서 전해 온 소식의 광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국경에는 항상 폭력의 수단이 존재했다. 이성의 벽을 벗어난 곳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야만인, 술꾼, “악당”이라 불리는 도둑들이 있었다. 부당함은 거친 세상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만큼은 아니었다. 확립된 질서와 왕의 통치 그 자체에, 영국인들의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문명화 된 삶에 도전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영국인과 싸운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고 엄청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없었다. 주민들은 언제나 땅의 법칙을 따랐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법에 복종했다.

오버튼 씨가 일어섰다. 아저씨는 키가 크고 말라 소매가 팔목 까지 닿지 못했다. “있잖아. 내 생각엔 말야. 돌아가는 형편을 지켜보는 게 좋겠어.” 아저씨가 말했다. 남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마디의 확신을 하고서는,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오두막에 있었던 단 한 사람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 해도 그 공포를 상상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국경의 삶

국경 지대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것이 땅이었다. 우기기만 해도, 한 가족이 수백 혹은 수천 에이커를 소유할 수 있었다.

땅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도, 땅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농사를 지으려면 나무들을 없애야 했는데, 몇몇 오크나무들은 지름이 오에서 육 피트나 되어서 한 그루씩 도끼로 찍어 내려야 했고, 다루기 쉬운 부분까지 잘라내어 내리쳤다. 그런 다음 그루터기를 땅에서 파내야 했는데, 종종 수제작된 나무 삽도 이용되었다. 한 그루터기는 일주일도 걸리기도 했고, 두 명에서 고된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한 구획의 땅에 나무 백여 그루가 있기도 했다.

만일 한 식구가 운이 좋아 비버가 남겨 둔 빈터를 발견이라도 하면, 시냇가를 둑으로 막아 호수를 만들어 그루터기 모두를 썩혀낼 수 있었다. 나무와 먹을 것이 없어지면 비버들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둑을 부수어 물을 빼고 나면 호수가 있던 자리에 빈터가 손쉽게 생기기도 했다.

## 제 3장

숲은 단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다. 고요했을 때조차도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전조, 속삭임이 있고는 했다. 만일 듣게 된다면, 완벽한 고요함이 세상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을 것이다.

사무엘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오등성이 산마루에 갔었다. 사냥도 하고, 숲을 느껴 보기도 했다.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 틀린 게 아니라면, 달라진 거였다. 숲은 마치 무엇인가 바뀌었거나, 막 바뀌려던 찰나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소년은 그런 기분을 떨쳐버리고, 계속 나아갔다. 산마루의 가로 세로가 달라서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우거진 숲이 해를 가렸다. 꿈을 사냥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면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 방향을 잃은 사냥감을 따라갔다.

길게 쪽 뻗어있는 오등성이 산마루는 사 또는 오 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소년이 따라 걷던 구불구불한 길은 아마 칠에서 팔 마일정도 일 것이다.

다섯 번째 능선의 절반 정도를 왔을 때 까지도 소년은 뚜렷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무성하게 수풀진 둥근 혹은 거대한 동물의 등짝과 같았다. 사무엘은 꿈이 갓 남긴 듯한 배설물에서 김이 나고 있었고, 열매씨앗과 풀줄기를 보았다. 산마루 꼭대기에 도착할 때까지 발아래 무성한 덤불을 속도를 줄여 통과했다. 놀랍게도 나무들이 베어져 있어서, 어느 방향이든 몇 마일을 내다 볼 수 있었다.

이 방향으로 사냥을 많이 다녔지만, 산마루에 가까이 와 본 적은 없었다. 여름과 이른 가을에 자란 무성한 덤불 때문에 고지를 볼 수가 없었다. 산마루 서쪽에 서 있는 사무엘 발아래에는 길이 0.5마일, 넓이 0.25마일 정도의 작은 계곡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뻐다. 둥근 초원의 기품어린 연속체와 우거진 풀은 이미 완벽한 농사였다. 나무가 없는 부분은 황목 울타리와 완벽하게 보일 오두막 한 채가 필요할 뿐이었다. “훌륭해,” 소년은 큰소리로 말했다. “늘 있던 것처럼 말이야.” 소년의 등 뒤 동쪽으로 바스러지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돌렸다. 사십여 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고, 비스듬한 어깨에, 검정색보다도 짙은 갈색인 한 살배기의 꿈이었다. 꿈은 큰 개 마냥 빈터에서 썩은 그루터기를 파내고 있었다. 사무엘은 발사 준비를 하려고 총을 들어 올려 잡았다. 나무 꼭대기 건너편에 꿈 위를 바라보았다.

연기였다.

짙은 연기구름이 상당히 멀리서 동쪽으로 거의 곧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불인가?’ 하지만 건조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대개 산불의 원인이 되는 천둥번개도 없었다. 사무엘은 이웃인 오버튼 씨가 베어놓고, 치워 놓은 나뭇가지와 덤불들을 태울 거라 했던 것이 기억났다. 연기의 방향과 거리가 부락의 오른쪽에서 나오는 듯 보였다. 꿈은 움직여 서더니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더니 사무엘이 발사하지 않자 그냥 가버렸다. 또 한 번 꿈을 놓치고 말았다.

연기는 오른쪽 방향의 짐작한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 됐다. 오늘은 숲의 느낌이 훨씬 이상했다.

소년은 소총의 공이치기를 풀어 개머리를 땅에 내려놓았다. 거기다 비스듬히 기대어서는 다친 짐승에게서 증상을 읽어내곤 했던 방식으로 왜 그런 연기가 나는 것 인지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회색 그늘음은 광범위 했고,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피어오르고 있었다. 잔가지 더미만 태웠다고 하기엔 연기가 너무나 컸다. 연기 주변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날씨가 맑고 바람 한 점 없었다.

‘괜찮아.’ 소년은 생각했다. ‘오버튼 씨가 잔가지 더미에 불을 놓자 주변 풀에 번져서, 더 커진 거야. 하지만 부락의 풀은 가축들이 다 먹어버렸고, 남은 거라곤 새싹이라 타기 힘든 것인데. 그러니 큰 연기를 만들어 낼 리가 없어. 그렇게 어둡고 큰 연기가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멀리서 보이는 거지? 아마도 팔마일 정도인가? 바람 없고 맑은 날, 팔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짙고 큰 연기 보인다는 건 틀림 없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소년은 연기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무시무시한 공포가 아니길 바라고 있었다. ‘일종의 공격인걸까? 아닐 거야.’ 소년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평화로운 시절들이 있었다. 동쪽의 마을과 도시에서 시작된 전쟁 통에서도, 이곳에서는 그렇게 빨리 일어난 적이 없었다. 소식을 듣고 난지 겨우 일주일일 지났다.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다. ‘집에서 떨어진, 무성한 숲속 팔 마일이라. 어두워지기 전까지 한 시간하고도 삼십분. 달이 없다는 것은 지독하게 어둡다는 뜻이야.’

어둠속에서 시속 팔마일로 소년이 과연 숲을 통과 할 수 있을까? 장님이 달리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부락에 공격이라니.

사무엘의 집에 공격이 있었던 걸까?

소년은 산마루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몸을 낮춰 집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갈림길을 자연스레 찾으며 사냥길을 빠져 나가려고 했다.

집에 도착했다. 소년의 집에 공격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도 습격을 당하셨나? 사무엘은 도움이 되어 주지 못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뺏으며, 속도를 올렸다. 모카신이 땅을 울렸고, 앞에 매여진 소총은 소년이 숲을 성큼성큼 나설 때마다 나뭇가지들을 움직였다. 한 때 그를 도와주던 푸르른 덤불들은 그를 제어하는 듯 했고, 잡아당겨 쥐는 듯 했다.

‘공격이라니. 거기서 부모님을 보호 했어야 했는데.’

## 제 2부

### 피의 전쟁 - 1776

## 무기

한 자루의 소총도 국경에 사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이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것은 일 년치 급여 혹은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고, 멀리 떨어져 사는 총 만드는 대장장이로부터 그것을 얻는데 일 년이 걸렸다. 영국군에 맞선 전투로 이어지는 봉기에 있어 총은 유일한 무기였다. 영국군에 허가된 총기는 브라운 베스 머스킷이라 불렸다. 활경포에 지름 약 0.75인치의 구경 75밀리의 둥근 탄환이 발사되었다. 검정색 화약이 장전되면 부싯돌에 점화되어 초당 칠 혹은 팔백 피트까지 탄을 밀어냈다. (현대의 소총은 총알을 초당 3000피트 이상까지 내보낸다.)

활경포에서 발사되는 둥근 탄환이 매우 안타깝게도 부정확해서 총열 아래로 내려오면서 탄환이 포의 가장자리를 맞고 튕겨져 나온다. 그래서 브라운 베스는 약 50야드의 거리까지만 적당했다. 탄환은 공중에서 매우 다양하게 변해서 병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겨냥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4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맞힐 수 있었다.

브라운 베스뿐만 아니라 영국군 각자에게 총열 끝에 비틀어 짜 맞추어 탄환이 비면 공격용 창으로 변할 수 있는 약 3피트 길이의 총검이 지급되었다. 개인무기와 더불어 영국군은 대포, 작은 전투 기관포를 이용했는데 포탄과 산탄을 터트리며 정교하지 않은 둥근 탄환을 발사 했다. 둥근 머스킷 탄환의 총보는 기관포가 거대한 엽총처럼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총의 구경을 다졌다. 산탄은 행군 종대에 매우 잔인하게도 효과적이어서 세계1차 대전 때 급속화기 기관총을 쓰기 전까지는 이것의 파괴력을 모방하지 못했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병들도 머스킷 탄환 단 한방으로 몇 사람이고 줄을 이어 관통해 끝장 낼 수 있었다.

## 제 4장

무엇인가가 보이기도 전에 냄새가 났다.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짙고, 무거운 냄새였다. 피였다. 죽음을 보았다. ‘말도 안돼’

단 한 마디가 소년의 머릿속을 장악했다. 머릿속 한편의 생각이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전투부에선 한 마디의 말만 떠올랐다. ‘안돼’.

소년은 심장이 불이 붙은 느낌이 들 때 까지 세계 달려 빠르게 이동했다. 숨이 돌아 올 때 까지 걷다가 또다시 전력을 다해 뛰었다.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마도 해가 3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부락에 이르자 옆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공격한 이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정면으로 걸어서 좋을 게 없었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보니 사무엘은 말이 없었다. 확실히 누군가 거기 있었다면 소리라도 났을 것이었다. 사무엘이 들은 거라곤 불타는 소리와 해질 무렵 새의 은은한 지저귐뿐이었다.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집 근처 빈터 가장자리에서 소년은 잠시 쉬었다 자신이 발견 한 것에 겁에 질렸다. 아니 두려움에 떨었다. 나뭇가지 뒤로 숨고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확실히 무엇인지 보려고 나뭇잎 사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오두막은 사라져 버렸다. 바닥까지 타버려서 옆 헛간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여기저기에 타다 남은 불이 깜빡 거리고, 바지직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연기는 저녁하늘로 피어올랐다. 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멀리서, 빈터에 흩어져 있는 다른 오두막들도 타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로 다 타 버렸다. 소년이 목격한 것이 안 좋은 일일까 두려워하면서도, 재를 찾고 시체의 작은 증거라도 찾아보려 애를 썼다.

자신이 정말 찾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란 생각을 떨쳐 낼 수가 없었다. 죽음의 기운이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도 소년의 머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죽었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잣더미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는 집 주변을 빙 돌며 샅샅이 뒤졌지만 부모님이 거기 계셨었다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수색 반경이 넓어지면서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쓰러진 이웃들의 시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체들은 사람의 형상의 아니었다. 소년이 본 것은 땅에 불려 다니는 쓰레기나 종이 아니면 천과 같아 보였다.

이웃들은 소년이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었다. 광란의 욕구가 소년을 스쳤다. 그 옆의 시체가 자신이 가장 걱정하며 찾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달려가 희미한 불빛 속에 하나하나씩 그것들을 확인했다. 대부분 너무 심하게 훼손 되어서 누가 누구였는지도 구분하기 힘들었다.

오버튼 씨가 사무엘네 오두막 옆에 누워 있었다. 여전히 아저씨의 옷소매는 팔목까지 닿지 않아 있었고, 가슴과 복부에는 화살을 맞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니 받쳐 줄 표 피가 사라져 버려 얼굴은 늘어져 있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 시체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땅거미가 비추는 사이로 시체들 사이를 달렸다. 소년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부모님을 찾을 수는 없었다. 예닐곱의 시체들은 살해 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여기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 누가 죽인 게 아니라니. 소년은 그 생각에 사로 잡혔다. 소년은 숨을 헐떡거리다 조금씩 흐느끼며 서 있었다. 두 번이나 속을 게워 내면서, 좌절의 눈물과 친구에 대한 애도와, 그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분노가 맛과 냄새와 뒤섞였다. 소년이 100살까지 살더라도 그 냄새와 맛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잔인한 분노로 저지를 수 있는 자신이 목격한 광기를 절대 잊지 못할 것만 같았다.

어둠이 이제 소년을 덮쳤다. 부락 주변을 빙 돌아보다 자기 집 오두막에 들렀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등으로 쓰던 것들도 남은 게 없었다. 양초마저 모두 녹아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타고 있던 불씨를 잡아서 오두막 파편으로 모닥불을 피웠다. 불빛 속에서 소년은 장작더미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타지 않았다. 장작더미 옆으로는 어머니가 불을 지필 때 마다 쓰던 소나무의 송진 웅이와 뿌리의 더미가 있었다. 웅이에 농축된 송진은 한 시간 이상 지속 되어 햇불처럼 쓰곤 했는데 그윽음이 많은 고온의 불꽃을 태워냈다. 땅을 정원으로 가꾸어 주곤 했던 오크 나무 삼을 마당 근처 작은 터에서 찾아냈다. 공격자들은 귀중한 모든 것들은 가져가거나 부셔놓았는데 나무 삼은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

코요테나 늑대, 곰이 오기 전에 물어놔야 할 시체가 아홉 구였다. 해가 들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밤에 물어둬야만 했다.

여분의 소나무 웅이와 삼을 챙겨, 시체 한 구마다 차례대로 했다. 각 시체마다 얇은 무덤을 팠다. 죽은 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이 파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수 있는 만큼 흙을 덮어 주었다. 세 구의 시체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자아이 둘에, 인형을 든 여자아이 하나, 어둠 속에서 정확히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올라프 쎄 씨네 오두막 앞에서 웃고 뛰놀던 아이들을 기억했다. 풀 속에서 발견한 인형을 가장 작았던 여자 아이와 같이 묻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과 생활하던, 오두막에서 만났던, 웃고, 이야기하던, 그저 함께 해준 것들에 대해 생각하자, 시체 하나 마다 탄식이 흘러 나왔다. 이제 모두 사라져 버렸다. 가고 없다. 사무엘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시체 모두를 묻는 데만 다섯 시간이 걸렸다. 일을 마치고 주변을 살펴보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시체들 마다 적절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재와 먼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도 소년은 햇불을 챙겨 무덤마다에 큰 절을 하고 이야기 했다.

“주여, 제발 이들과 함께 하소서.” 소년이 떠 올릴 수 있었던 말의 전부였고, 그런 대로 적절한 말이길 바랐다.

자기 집 오두막 터 옆 모닥불로 돌아와서는 앉아서 불을 바라보았다. 기도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살아남은 모든 이를 위한 기도이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였다.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빛이 들어 부모님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삼십 분이 지나자 점점 소년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졸음이 쏟아졌다. 불 옆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 까지 소년이 예상하곤 했던 마녀와 멍청이가 나오는 나쁜 꿈을 꾸며 깊이 잠이 들었다 훌쩍였고,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 미국인

미국군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군(혹은 일반군), 자원형 민병대, 기습 공격 대원이나 게릴라 전술을 훈련받은 소단위가 있다.

미국군은 전투에서 정면으로 맞서며, 영국군처럼 브라운 베스 장총인 활강포나 때로는 총검을 갖추었다. 병사 대부분이 큰 도끼나 작은 손도끼를 지녔는데, 총검술 방어선인 맨 앞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자원형 민병대 병사들은 주로 미국군을 보충하는데 쓰였는데, 민병대 훈련이 더 잘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믿음이 갔을 텐데 종종 그러지 못했다. 게다가 종종 일제사격 후나 총검이 다가오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모르건 라이플과 같은 특수 기습 공격 대원들은 그들이 지나는 소총 덕택에 인원 대비 효과가 훨씬 컸다. 소총은 그 자체에, 나선 홈이 총열 안쪽에 나있고, 화약의 적은 압력을 통해 천천히 비틀어져 1회전 시 약 35에서 40인치를 돈다. 개조된 탄환은 경구와 홈 속에 딱 조여지고, 최대 40 인치인 긴 경구는 더 큰 화약이 장착 가능해서, 탄환이 훨씬 더 높은 속도로 활경포의 탄환보다 2배 이상 빨랐다. 높은 속도의 회전이 탄환이 안정되게 날아가게 해주고, 정확성이 훨씬 좋게 된다.

## 제 5장

사무엘은 겨우 13살이었다. 소년은 국경지대에서 살았는데, 모든 것들이 평범했지만, 모든 이들이 열세 살에서 서른 살까지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들을 있었다. 집안 일을 도울 수 있을 때 유년기는 끝이 난다. 건강한 여자 남자 아이인 경우, 여덟 혹은 아홉 살, 아마 열 살이면 유년기가 끝이 난다.

반드시 그들 주변의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체력이 부족했고, 온순한 성품에, 책과 음악을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처럼 경이로운 마음으로 주위 세상과 더불어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었기에 사무엘은 일찍이 식구들을 위해 부양자가 되었다.

소년이 숲과 친해져 가면서, 사냥 실력은 늘어갔다. 실제로는 숲이 소년을 받아들였고, 그 안으로 이끌어 불어에서 말하는 숲의 전령인 숲을 달리는 아이로 만들었다. 얼마 후 소년은 거의 부락 전체에 고기를 공급했고, 그 보답으로 다른 남녀 어른들도 사무엘의 부모의 작은 농장에서 일을 거들어주었고, 사무엘이 숲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의 일을 대신해 주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면 사슴이나 곰 아니면 다람쥐가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사무엘의 감각이 늘었다. 길을 바라보기만 해도 짐승이나 사람이 언제 만든 것인지, 그놈이 서두르고 있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었는지, 또 그 놈이 무엇을 쫓고 있었는지, 얼마나 가까이에 접근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년이 숲과, 들판에서, 그리고 초원에서 더 많이 머무르게 될수록,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때때로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사냥 실력과 숲에서의 감각이 뛰어 났기 때문에 소년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다. 부락의 이웃들은 이런 점을 알고서 사냥이나 숲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그를 찾았다. 사람들은 소년에게 놀라워했고, 다른 사람들 보다 영적으로 신성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사무엘은 그런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웠을 뿐이었다.

이제 소년은 그를 만난 그 날처럼 신호를 읽으려 모든 지식을 앞세웠다.

나무 사이로 아침별이 들기 전에 일어섰다. 몹시도 목이 말라 깨어서는 오두막 뒤를 지나 흐르는 시냇가로 가서 오랫동안 물을 마셨다. 물이 너무나 차가워 이가 시리면서도 너무나 달콤해 전날 밤에 생긴 입속 악취를 없애 주었다. 배가 고팠지만 약탈자들도 찾지 못한 음식이 생길 리가 없었다. 길을 따라서 무엇이든 사냥해야 했다.

이제까지는 신호를 읽고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정확히 벌어졌는지

알아내는 것 외엔 얻은 게 없었다.

사무엘은 오두막 주변을 돌며, 스스로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고는 풀에서 떨어져 있는 부드러운 흙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바닥을 주의 깊게 살폈다.

처음엔 어머니를 위해 사무엘이 만든 모카신처럼 보이는 작은 흔적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모카신 자국도 나있었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며 자랑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발목을 접 지른 적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가락에 그 자국이 살짝 나있었다. 두 발자국 모두 오두막 대문 앞에 부드러운 흙에 나있었다. 부모님이 오고 가며 남기던 흔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오두막 측면에 있던 흙에서, 더 많은 모카신 자국을 보았다. 공격자들이 뛰어다니며 낸 크고, 평평한 발자국들이 있었다. 발자국들이 너무 많이 나있어서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발자국들 위에는 뒤 늦게 온 자들이 가죽 밑창과 있는 단단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최소한 평범한 신을 신은 남자 세 명중 두 명은 보통 체중에, 한 명은 더 무게가 나간 듯 보였다. 모든 흔적들 위로, 소년은 말 발자국도 보았다. 둘 아니면 말 세 마리, 발자국 위에 가해진 무게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말발굽이 없었고, 끌려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부락의 어떤 사람도 신발을 신거나, 말을 탈 만큼 부유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만이 일하는 말을 기르고 있었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다른 이들은 너무 늙거나 쇠약해지면 잡아먹을 수 있는 소를 키웠다.

공격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사무엘이 길을 되짚어 가보니 부드러운 흙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공격자들이 시냇가를 따라 나타나 오두막 옆 빈터에서 갑자기 시작했다. 소년의 부모님은 아마 밖에 계셨을 테고, 대응할 시간도 없이 공격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머스킷 총을 가까이에서 두지 못했을 것이다. 집 근처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안에다 두고 오는 게 아버지다웠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지켜 봐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선량하고 관대해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믿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소년은 생각했다.

공격은 순식간에 커졌다. 소년은 오버튼씨와 다른 사람들이 쓰러져 있던 곳을 보고, 손도끼로 완전히 난도질당한 사람들의 피가 이제는 파리 떼로 뒤덮여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살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사무엘에게 수수께끼였다. 소년에게는 다행이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격 범위를 쫓아가다 소년은 길을 잃었다. 세 사람의 큰 모카신과 신발 자국이 여기저기 나있었다. 부락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었다. 희생자들의 비명 소리와 피의 냄새와 공포와 죽음의 기운이 섞인 공격자들의 전쟁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소년은 적어도 신발을 신은 두 사람이 말에 올라탔을 지점을 찾았다. 여기저기에

어머니 아버지의 한두 가지 흔적이 보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길이 마모되고 흐트러졌다. 그들이 따라간 새로운 길로 다른 사람들도 해를 입지 않고 부락의 동부 쪽으로 떠밀려갔다.

마침내, 소년은 공격이 끝이 어땠는지 짐작하게 되었다. 오두막을 불태우는 것을 끝으로, 살아남은 희생자들을 목을 줄로 감은 채 일렬로 길을 따라 끌고 갔을 것이다. 말들이 앞장서고 공격자들은 앞뒤로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포로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살해당한 흔적은 없는 듯 했다.

‘언제일까? 언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일까?’

소년은 눈 먼 사람도 따라 갈만한 그 흔적들을 따라 가기 시작하며 의문점에 답을 찾아보려 했다. 그 전날 소년은 집을 일찍 나섰고, 부락 주변의 숲에서는 이미 사냥감을 다 찾아내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이 보일 때까지 서쪽으로 움직였었다. ‘오전 나절인데도 총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라면 분명 총은 쓰지 않은 거야. 땅에 묻힌 희생자 모두가 손도끼나 곤봉으로 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공격은 아침 한창 때에 일어났을 거야. 그게 가장 빠른 시간이었겠지.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24 시간이 남아 있었겠지. 아마도 20시간 아니면 22시간. 포로들과 같이 있으니 천천히 이동했을 테니 한 시간에 2마일 정도 갔을 거야. 남은 여섯 시간 때문에 14시간에서 16시간 이동했을지도 몰라. 24에서 28마일정도 일거야.’ ‘아마도 그 이하 일 수 있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앞 오솔길 살피며 발자국 간격을 보면서 속도를 가늠해 보았다. 그들은 전부 가까이 있었다. 말의 흔적이 그들의 느린 움직임을 설명해 주었다. ‘기껏해야 20마일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짐작 일 뿐이었다.

결국 소년의 짐작이 틀렸다. 십 마일 더 떨어진 곳에 오두막 네 채로 이루어진 다른 부락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공격자들은 그 곳에는 들러 거기 살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 영국군

대체로 훈련이 잘 안된 영국 사병들은 급여도 형편없었다. 종종 전혀 보상 없이 몇 달을 지내기도 했고, 부실한 치료를 받았고(부상당한 병사들은 사실상 무시 되었고, 동료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 죽게 내버렸다.) 형편없는 식사와(절인 고기, 마른 콩과 차가 주식이었다), 푸대접(아주 경미한 위반 때문에 병사의 등이 찢길 때까지 마차 바퀴에 묶여 태형을 받았다)을 받았다.

그런데도 다소 놀랍지만, 독립전쟁까지만 해도 영국군은 세계 대부분을 정복하고 있었다. 영국의 젊은 장교들은 식민지와의 싸움에 파견되고 있었고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거의 확실하니 신변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해라.” 라 당부 받았다.

## 제 6장

소년이 걷자 마치 무시무시한 폭풍이 따라오는 듯 느낌을 받았다. 흔적조차도 몹시 처참했다. 발자국만 봐도 포로들이 서로 묶인 채 속도를 내리며 강요당하며 끌려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발자국으로 보아 발을 질질 끌고 있었고, 몹시 지친 듯 했으며, 소년은 어머니의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마르고 작은 체구이긴 하지만 당신만의 강인함이 있는 분이였다. 하지만 목에 밧줄을 매는 이 야만적인 취급은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지나 친 것 이었다. ‘만일 어머니가 너무 느려서 그들이 무슨 짓이라도 했더라면...’ 소년은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부락에 도착한 파괴와 시체들을 처리하면서 느낀 충격은 사무엘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이제 충격은 분노로 변해 흥분상태가 되었다. 소년이 침착하려 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년은 부모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따금씩 그들의 발자국을 보았고, 따라가 부모님을 구해야만 했다. ‘어떻게 부모님을 구출해 낼 수 있을까...’ 더 알아낼 수 있을 때 까지 두고 보고 지켜보아야 했다.

소년은 흔적들을 살펴보며 이해하려 했다. 냇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은 사무엘이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그들을 따라잡을 때 즈음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야 했다.

사무엘은 멈추어 가쁜 숨을 고르려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솔길과 주변 땅을 살피며 자신이 해냈던 모든 것을 기억해 내려 했다.

모든 포획자와 포로들이 길을 걸을 때, 다른 이들이 한 쪽으로 이탈했을 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소년이 재빨리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풀이여서 가늠하기 어려웠다. 마침내 마른 흙 위에서 굵긴 자국과 모카신 자국을 발견했다. 큰 무리의 정찰대가 양 옆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한 번 더 몸을 좌우로 흔들어 보니, 시체 하나가 보였다. 30대로 보이는 남자는 산딸기를 따고 있을 때 그놈 들이 다가온 것 같았다. 이 남자는 틀림없이 소총이나 머스킷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도 총 없이 숲을 나가지 않으려 하니 말이다. 그런데 남자의 뿔 화약통과 사냥용 자루와 함께 총이 사라지고 말았다. 남자는 머리가죽이 벗겨진 채 훼손되어 있었다.

슬프게도, 그 남자에게 적당한 무덤을 만들어줄 시간이 사무엘에게는 없었다. 칼로 얇은 도랑을 만들어 최소한의 흙이라도 덮어 주었다.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숲길로 향했다.

시체를 덮어주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소년의 마음을 앞게 했다. 계속 걸을 때 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다. 속도를 냈고,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다음 부락의 빈터에 이르렀다.

소년이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오두막이 몇 채 남아 있지 않았고 사무엘의 집과는 다르게 ‘드레이퍼의 교차점’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것도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는 소년이 자신의 부락에서 목격한 끔찍한 황량함 같아 보였다. 타버린 오두막과 헛간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이 멈추어 섰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빈터의 남쪽으로 형상이 보였다. 노인이었다. 사무엘이 다가가보니 분명 무덤처럼 보이는 더미에 나무 삼으로 흙을 덮어 내고 있었다. 노래도 부르고 있었다.

“세월의 바위여, 나를 위해 몸을 쪼개어, 네 안에 나를 숨겨주오...”

소년은 10야드 멀리서 멈춰 섰다. 그 노인에게 무기는 없었지만 사무엘은 가슴에 맨 소총의 공이치기에 엄지손가락을 올려 준비를 했다. 노인은 삼으로 흙을 다졌고, 소년은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다른 4개의 무덤을 확인했다. 노인은 노래하듯 말했다.

“잠자는 가여운 내 사랑이여, 예수의 아들과 잠든 이여. 잠자는 모든 가여운 내 사랑이여, 하느님의 아들과 잠든 이여...”

사무엘이 인기척 했지만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 오셨네, 예수의 아들 오셔서 모두 이들을 하늘로 데려 갔다네-”

“공격자들이 여기에 언제 왔었나요?” 소년은 결국 노인의 노래를 멈추게 했다.

노인은 사무엘을 돌아보고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주여, 예수의 아들 오셔서 모두 하늘로 데리고 갔네요. 드레이퍼와 물리가 와서 예수의 아들에게 모두를 데리고 가버렸지.”

“그게 얼마나 되었나요? 그 사람들이 언제 왔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두워졌을 때였지. 모두를 예수의 아들에게 데리고 갔어. 늙은 바비만 빼고 말이지.

늙은 바비는 앉아서 흙을 먹으며 예수의 아들을 가리키며 꺾구멍에다 얘기했지. 꺾구멍이었어, 그래서 늙은 바비가 돌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돌지 않았어....”

“물어요, 여기 물이나 음식이 있나요?”

“...절대 돌지 않았어, 예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구원한다고. 그래서 난 앉아서 흙을 먹으며, 웃고 기도했다고...”

날카롭고도, 강렬하며 비현실적이게 푸른 눈으로, 노인은 사무엘은 아닌 무언가를 노려보았다. 사무엘을 통해 오직 노인만이 보고 알 수 있는 더 먼 곳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삼을 집어 들고는 사무엘이 타버린 오두막을 발견했던 남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 옆으로는 헝겊더미 같아 보이던 것이 있었지만 소년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시체 한 구가 더 있었다.

그제 서야 소년은 인디언들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국경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 소년은 아는 바가 거의 없었고, 소년이 아는 것이라고는 어른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것들이었고, 어른들이 발효 사과술이나 당밀이 들어간 럼주를 마시고 난 후 해주던 이야기나 소문들이었다.

사무엘은 몇몇 부족이 생각났다. 그 부족들은 미친 사람은 신의 계시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보호해야하고 해쳐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늙은 바비를 낚 준 것이 틀림없다.

“이 사람 미친 걸 거야.” 삼을 든 노인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사무엘이 큰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아닐 지도 모르지. 어쨌든 살아 있잖아.”

소년은 길을 다시 나섰다.

‘만일 어둠 속에서 그들이 왔다는 늙은 바비의 말이 옳다면, 아마도 새벽이 되기 바로 전이었겠지, 어쨌든 적어도 쉬기 위해 멈춰야 하니까’

사무엘에게 수확이 있었다. 소년이 계속 움직여만 한다는 의미였다.



## 세계

독립전쟁은 세계대전처럼 매우 급격하게 변해 갔다. 미국 원주민들은 양쪽 입장에 서서 싸웠고, 스페인은 미국의 편이었고 적어도 해군도 같은 입장이었다. 독일도 헤시안이라 알려진 용병을 파견했다. 해군을 통해 영국군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프랑스도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였다. 사실상 영국 해군은 프랑스군에 선취권을 빼앗겨 미국의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

## 제 7장

사무엘은 사십 시간째 달려가고 있었다. 드레이크의 교차점을 떠나오면서 공격자들이 태워버리려 했던 옥수수 밭을 지났다. 옥수수의 알들이 익어가고 있었다. 배가 너무 고파 옥수수를 게걸스럽게 먹어댔고 수 십 알을 쥐고서는 옷 속으로 쑤셔 넣었다. 걸어가며 먹는 달콤한 옥수수 즙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뱃속으로 들어갔다. 허기짐은 더 강렬해졌고 옥수수를 먹다보니 턱이 아파왔다. 음식을 먹으니 물이 당겼다.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볼 겨를도 없었다. 작은 시냇가가 보이자 물을 마시기 위해 길을 멈췄다.

시냇가가 오솔길을 가로지르는 곳에 진흙이 있었다. 20야드의 부성한 덩불을 치워 내자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의 상류가 나왔다. 무릎을 굽혀 입을 물가에 가져다 대니 비로소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소년의 입술이 물에 닿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주민의 언어였고, 시끄럽게 웃고 있었다. 두 명의 남자였다. 만일 사무엘에게 다가 온다면 분명히 그를 해치거나 잡아가려 했을 것이다.

사무엘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덩불 속 작은 구멍 속으로 그 사람들의 허리 아래가 보였다, 가죽 바지와 모카신을 신고 있었고, 한 손에는 머스킷을 들고 있었다. 그들 옆으로 매달려 있는 개머리가 보였다. 다른 손에는 쿠 스틱이나 위협적인 창이 들려 있었다. 두 남자 모두 가지고 다니는 화살로 갓 얻어낸 머리가죽이 매달려 있었다. 사무엘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따라 잔인하게 끌려갔을 어머니의 작은 발자국을 추적하면서 소년이 느끼기 시작하는 압도하는 분노가 마음 속의 뜨거운 칼날 같았다. 만일 한명만 있었다면 마음 먹은대로 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손도끼가 없었고, 가진 것이라곤 얇은 칼 한 자루와 한 방씩 발사되는 소총뿐이었다. 소년이 장전하기도 전에 총을 맞지 않은 사람이 달려들 수도 있다. 자가 방어를 위한 칼 한 자루만 가지고서는 기회를 노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숙여 천천히 움직이면서 가던 길을 다시 이어갔다.

그 남자들은 왜 돌아온 것일까? 이유가 뭐든 간에,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는 이곳까지 두 사람만 멀리 되돌아 왔을 리가 없었다. 그들에게 배후의 세력이 있다면 계속 이동하길 원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이에 가고 있는지도 몰라’ 사무엘은 생각했다.

조강하듯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와 마주칠 경우에 대비해 무성한 덩불 가장자리에 난 길가로만 철저하게 따라갔다. 덕분에 다시 목숨을 아꼈다.

비버가 사는 오래된 연못가 빈터들이 숲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일부는 1에서 2 에이커의 작은 터였고, 30에서 40에이커의 크기의 다른 빈터들도 있었다.

큰 빈터 하나가 사무엘의 눈앞에 펼쳐졌다. 늦은 오후였는데 거의 저녁이나 다름 없었다. 소년 뒤 서쪽에서 해가 빈터를 향해 기울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빈터는 큰 기지가 되어 빨간 제복을 입은 영국 병사들 과 인디언들로 가득했으며, 거의 0.25마일 떨어진 곳에는 말들이 장착된 화물용 마차들이 있었다.

사무엘은 미끄러지듯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곳 까지 멀리 기어 갔다. 안타깝게도, 사무엘도 볼 수 가 없었다. 무성한 나뭇잎 속으로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 본 것을 생각해 내려했다.

‘나갈 준비를 마친 마차 세 대와 말에 탄 세 명의 장교를 포함해 열 댓 명의 병사들과 열 댓 명의 인디언들. 소년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병사들이 저렇게 많을 리가 없어. 일곱 아니면 여덟이야. 인디언들보다 적었으니, 여덟 아님 아홉이야.

빈터 한 가운데에는 큰 불이 있었고, 작은 불들이 마차 가까이에 있었다. 사람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포로들이었다.

포로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무리에 있는지 사무엘이 확인하기엔 너무 멀리 있었다.

마차 가까이에 밧줄로 된 우리에는 말 한 두 마리와 황소 서 너 마리가 있었는데 아마 젖소인 것 같았다. 큰 불가에는 큰 동물이 쇠꼬챙이에 꽂혀 요리되고 있었다. 사무엘은 주변의 덤불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내렸다. 공격자들을 따라 잡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포로의 무리에 함께 있다는 가망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출할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소년이 한 일이라곤 그들을 따라 잡아, 여전히 부모님이 살아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뿐이었다. 부모님의 여기 계실까? 추적하는 길에 부모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는데, 포로들은 불가에 있었다. 그 순간, 충분해졌다. 계획은 나중이었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여전히 달이 보지지 않았다. 사냥에서 돌아 온지 사십여 시간 밖에 되지 않았단 사실에 소년은 깜짝 놀랐다. 그 시간에 소년의 인생 전체가, 모든 것이 이제 달라졌으며, 짓이기고 처참해 졌으며, 제자리에서 영원히 변해 버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달이 없으니 곧 어두워 질 거야.’ 소년은 생각했다. 칙흑 같은 어두움 속 별빛 아래에서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았다. 사무엘은 계획이 떠오르지 않았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소년은 편히 앉아 들키지 않고서 포로들을 데리러 갈 방법을 생각해 냈다. 온 세상을 날려버릴 방법을 말이다.

## 전투

전투 시 영국군의 절차는 서열 2,3위 의 장군과 함께 전선에 있는 적에게 행진하는 것이었다. 서열 2위가 앞으로 전진 하여 발사한 뒤 후퇴하여 장전하는 동안 전방장교는 오십에서 육십 야드에서 발사한 뒤, 후퇴하여 재장전 하였고, 그 동안 후방장교는 앞으로 나와 발사를 했다.

이 회전식 일제 사격은 일종의 화력 증강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무기들은 매우 단순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져 일제히 사격을 멈추는 절망의 상황일 때 전선에 대항하는데 있어 이 방법은 거의 불가능했다. 상대방의 복부를 노리는 총검을 가진 포효하는 사람들의 횡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했다. 몇 번 썩이나 미국 병사들은 철의 벽이라고 불리는 영국군을 상대하기 보다는 발을 돌려 도망쳤다.

## 제 8장

인디언들은 큰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떠들기 시작하더니 기념이라도 하듯 하늘 위로 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사무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커지자 위장을 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가 달라졌다.

인디언들은 춤을 추며 하늘로 총을 쏘아대고 있었고, 멀리서 폭발이 일어났다. 활경포 머스킷을 발사하고 있었는데, 총성 소리가 크게 나는 무기였다. 하지만 이 낮은 소리는 소총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무엘은 가장자리에서 다시 기어 나와 또 다른 길이 나오는 공터의 북쪽에서 발사되는 것을 확인했다. 여섯에서 여덟 발이 발사 되었다. 검은 화약의 연기구름이 숲에서 흘러 나왔다. 장전하는 동안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여덟 발을 발사했다.

인디언들과 영국 병사들이 깜짝 놀랐다. 원주민 몇 명과 병사 하나가 쓰러졌다. 아마도 죽은 것 같았다. 다른 몇몇은 숨기 위해 부상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인디언과 영국 병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격을 가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깜짝 놀랐다. 하나는 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의 구출이 실패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소년은 길가 옆 빈터로 이동했다. 소총을 들고서 뒤로 젖혔다.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잊은 채, 가장 가까운 영국 병사들을 겨냥했다. 30야드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사무엘이 전방시야의 양은이 빨간 제복 위에 맞춰졌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자 첫 방아쇠를 고정시키는 손가락을 촉발 방아쇠 쪽으로 움직였다.

인디언 두 명이 더 먼저 사무엘을 발견하고서 달려오고 것이 보이자 사무엘도 방향을 틀었다.

“뭘-.” 말도 채 나오지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인디언 한 명이 자기 총을 들어 올려 발사했다. 사무엘은 총알이 뺨을 스치는 것이 느껴졌다. 무의식적으로, 둔부에 있는 소총의 촉발 방아쇠를 만졌다. 천천히 소총의 도약을 느껴지자 인디언의 가슴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총에서 나온 연기구름 사이로 인디언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나머지 한 명의 인디언은 손도끼로 넓은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다. 소년은 공격을 막으려고 소총을 제 때에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손도끼는 소년의 머리를 향해 오고 있었고, 피하려고 했지만, 손도끼가 이마를 세게 내리치자 하얗고 뜨거워진 약실이 터져버렸다.

## 부상

치료받지 못한 전투 부상들은 종종 괴저를 초래했는데, 말 그대로 몸이 썩어간다는 뜻으로 염증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처음에는 퍼렇게 변했다가 검게 변해간다. 18세기에는 항생제를 이용 할 수 없었기에, 절단이 흔한 치료법이였다. 괴저의 끔찍한 악취 덕분에, 외과의사 들은 환자의 냄새를 맡고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만약 환자가 절단을 통해서 치료 될 수 있는 운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 치료의 일환으로 부상자에게 구더기가 주어졌는데 구더기들이 감염 균을 먹어 치우곤 했다. 신체에 대한 수술적 제거나 기생충의 이용이 없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당시의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 제 9장

이상한 꿈을 꾸었다. 비현실의 모습이었다.

공공 앓는 소리로 시작해 점점 날카로워 지는 비명은 소년의 영혼을 끊어 놓을 때까지 끝이 없었다.

어머니의 꿈을 꾸었다. 전부 녹비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나무 스푼으로 걸쭉한 스투를 나무 그릇에 퍼 담고 계셨다. 그릇을 쥐고 있는 동안 담뱃잎을 씹어 옆으로 뱉어 냈다.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어디에도 없어.” 어머니는 다시 담뱃잎 즙을 씹어 뱉어냈다. “똑똑한 이들은 바빠 서둘러 지옥으로 가버렸지.”

두껍고 어두운 덮개로 된 들창문이 닫혀 있었고, 빛은 전혀 들지 않았다. 복된 어둠 속에서, 잠이 들다, 잠을 잤고, 자면서도 계속 비명을 질러 댔다.

무감각의 시간이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 내려 하면, 그것 때문에 일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고, 십년이든 사투를 벌였다. 그는 분간 할 수 없었다.

더 많은 꿈을 꾸었다. 꿈은 흩어져 버렸고, 어머니는 이번엔 지저분한 검은 머리를 옆으로 늘어트리어 담요로 몸을 싸 맨 채 아주 불쾌한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되새김질을 쏟아내더니 사무엘의 머리에다 후려치고서는 지저분한 깔개 위로 묶어 두었다. 더 많은 담뱃잎을 씹어 뱉고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용소로 가 거라, 안 그럼 그녀가 그를 죽여 버릴 거야.”

정말 소년의 눈이 절대 떠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감은 눈꺼풀을 통해 모든 것을 보듯 머리 속은 소용돌이치는 이미지들이 섞여서 모든 것이 흐릿해 졌다.

밤낮으로 빛과 어둠이 서로 펄럭이고 넘쳐흘렀다. 그림들은 잠깐 동안 붙어 있다가 사라져 버렸다.

말 과 소, 그 옆으로는 어머니가 여전히 더러운 담요를 덮어 쓴 채 기대 계셨고, 기름진 검은 머리는 그녀의 머리 한 쪽으로 늘어져 있었다. 습포제를 들어 올리며 웃어 보이시고는 더 많은 담뱃잎을 씹어 뱉었다. “와서 닦아 주렴” 어머니가 말씀 하셨다. “고름을 짜내어라. 샘물처럼 깨끗해 보일거야. 우스꽝스러운 것은 사라졌으니.” 그러더니 쿵쾅거렸다. 놀랄 만큼 거친 마치 소년이 잠을 청하려 할 때 누군가가 침대 위로 뛰어 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고통으로 기절을 했고 고통의 물결이 퍼져 나갔다.

마침내 그림이 멈췄다. 바로 제 눈앞에서, 마음 속 바로 앞에서 갇혔다.

어두워 졌거나 밤이었다. 바닥에 놓인 나무 틀 위에 누워 있었다. 가까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눈을 크게 떴을 때는 불빛이 창을 머릿속에 힘껏 밀어 넣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통으로 공공 거렸다. 눈을 감고 퍼져가는 그림이 다시 시작되길 기다렸다. 그림이 다시 시작되지 않자 소년은 눈을 겨우 살짝 뜰 수 있었다.

이미지는 변함이 없었다. 침대 틀과 불이 보였다. 빛 때문에 이번에는 고통이 덜 느껴졌다. 찾아봐도 지렛대가 보이지 않았고, 나무 막대기를 불에 올려놨다가 꺼내었다. 머리를 움직여보고 지렛대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거의 의식을 잃을 뻔 했다. 그는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가 고통이 서서히 약해지자 눈을 떴다.

“어디예요, 누구...?” 머릿속에서 자신의 말이 울려 퍼졌다.

불가 옆에 형제 하나가 보였다. 소년의 어머니가 아닌 지저분한 머리에 담뱃잎즙이 뺨에 가득한 젊은 남자였다. 남자는 몸을 기대어 얼굴을 사무엘에게 가까이 댔다.

“옳은 일을 할 텐가, 아니면 다시 멀리 떠날 건가?”

“전, 전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난 존이라고 해, 존 쿠퍼. 그냥 쿠퍼라고 불러도 된다.”

“여기가...?”

“말하자면 길단다. 네 머리의 혹이 생긴 곳에서 우린 12마일정도 떨어져 와있단다. 12마일이면 시간에 비해 많이 온 셈이지.”

“언제 말해요..?” 기억나지 않아요. 인디언들이 있었고, 한번 총을 맞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제가 왜 인디언을 쏜 거죠?”

“말해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린 이로쿼이 족과 영국군을 찾아 왔단다. 우린 이미 그들 이 밀러의 교차점에서 뭘 가져갔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 적당한 때 찾아가 그들과 대전을 벌였지.”

“기억나요. 아저씨가 총을 쏘고 있었죠. ‘우리’라고 얘기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고 있단다. 난 오늘 밤 불침번이야. 그리고 너도 돌보고 있었어. 난 그날 밤 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 수명이 남은 펌프처럼 숨을 쉬더구나. 죽지 않았으니 공기라도 빨아 들였겠지. 일어날 만 한 일이었어. 내 사촌 중에 노새에 머리를 치인 애가 있는데 말이야. 노새가 과팩했지. 개는 죽기 전까지 두 달을 살았어. 이따금씩 방귀뀌듯 투덜거리는 거 외엔 누구하고 말을 섞지 않았어. 그리고는 기력을 잃고 죽고 말았지.”

사무엘은 어지러움을 느껴 눈을 감았다. 안개가 걷히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난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말은 영국군과 인디언들이 제가 곰 사냥을 나간 사이 우리 마을을 습격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 부모님과 다른 포로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쿵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들을 봤어. 불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말이야. 밧줄로 묶여 있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쿵이 어깨를 움추렸다. “큰 전투는 아니었어. 우리 한번 발사했고, 한 차례 때려 눕혔더니 도망 가버렸단다. 영국병사는 이미 마차에 올라타서 포로들을 싣고서 급히 떠나버렸단다. 포로들을 맞힐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이상 쓸 수 없었지. 마차들은 연기처럼 줄행랑을 쳤고, 그들 중 한명이 폴에게 머스킷 총을 쏘을 거야. 복부에 맞고 말았어. 거긴 엄청 아픈 곳인데. 우리 그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 복부 부상에서 살아남는 이가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기다렸어. 그래도 폴은 4일을 버텼어. 그렇지만 어제 밤 결국 영혼을 포기했더군, 아니다 그저께 밤이군. 비명을 지르며 죽었어. 안됐어. 놀라운 것은 그 비명에도 넌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모두들 밤을 샜는데 말이야.”

사무엘은 다시 눈을 감고는 숫자를 더해 보았다. 이틀 전 나흘을 버티던 한 명이 죽었고, 복부 부상이 죽는데 나흘이 걸린다면, 싸움이 있었던 날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폴이 이틀 전에 죽었다니... “포로를 끌고 간지가 얼마나 된 거죠 전투 이후라고요?”

“오륙일은 되었지. 육일 동안 네가 누워있었으니. 우리 널 보고 그냥 놔두고 오려했어. 널 침입자라 생각 했었거든.”

“제가요? 어째서요?”

“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쪽 사람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칼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어 칼은 나의 형이야. 그런 일을 고민해 보는 사람이지. 형이 네 머리가 어찌나 지저분한지 보라며 그들이 네 머리에 낸 도끼질과 네가 죽인 인디언 머리에 난 총알구멍을 보라고 하더라. 네가 가진 그 작은 총이 대단했지. 네가 어떻게 그들 편일 수 있겠냐며, 그래서 널 데리고 온 거야..”

“제가 여기 6일 이나 있었다고요?”

“거의 7일이지. 그날 밤까지 더하면.”

“우리가 12마일이나 왔다고 했죠?”

쿵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삼일은 아니지, 나흘 짜 되던 날 우리가 널 눕혔지. 모두가 네가 죽을 거라 생각했어. 널 끌고 갈 마음이 없었지. 근데 복부 부상을 달한 폴 말이야. 우리가 그를 움직이려 하니 팬더처럼 비명을 지르더군. 그리고 나서 그물을 만들어 그놈들이 도망칠 때 두고 간 소들 중 한 마리로 널 끌고 오기 시작했지.”

“온통 부딪힌 것이군요.”

쿵은 수궁하며 담뱃잎을 불 속에 뿜어내고는 그것이 췌췌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없었고, 널 어딘가에 누워있다 죽거나 끌고 오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지. 우리가 널 내버려 두었다면, 뭔가 다가와서 널 먹어 치웠겠지. 어쨌든...넌 여기 있잖아.”

“머리가....”

쿵은 머리를 까닥였다. 상처가 그만 하길 다행이야. 칼이 갖고 있던 사슴 힘줄하고 수리용으로 들고 다니던 오래된 바늘로 알맞게 꼬매 났어. 칼이 네가 살더라도 흉이 크게 지지 않을 거라 하더군. 네 이마에 말이야.”

쿵은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퍼런 고름이 나오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야. 그래서 그걸 다 짜내고, 상처에다 담배 찌질포를 형겁으로 묶어놔. 고름 이 이틀 만에 싹 사라 졌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6일이나 누워있었군요.”

또 한 번 수궁했다. “7일이 되어가는 구만.”

“저, 어떻게...” 깜짝 놀라면서, 사무엘은 덮고 있던 성긴 담요 속 아래로 바지를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왜 지저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네 바지를 벗겼어. 담요에 다가 네 소총과 함께 싸두었지. 인디언이 급하지만 앉았더라면 분명히 너의 그 귀여운 총을 가져가려 했었을 거야.

네 사냥 자루와 화약통도 챙겨 놔. 네 궁둥이 쪽 아래로 느껴지는 건 갓 탄 풀이야. 네가 똥을 눌 때 마다 다 쓴 건 던져버리고 갓 탄 풀 6인치 정도를 넣어 줬지.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매끄러울 거야. 아님 아기 엉덩이처럼 말이야.”

“아마도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네요.”

“미치지 않고 서야 나갈 수 있겠니.”

“안돼요.”

“내 말 좀 들어라. 네 엉덩이 풀 항상 갈아준 사람이 나라구. 한번 내가 먹여준 죽 약간 말고는 내가 먹은 거라곤 없어. 이따금씩 물도 먹였지. 음식이 없으면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해, 물을 마시면 좀 버틸 수 있지만 말야.”

“배가 고파 죽을 거 같아요.”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그 말과 동시에 소년은 전에도 이렇게 배가 고팠던 느낌이 들었다.

“부드러운 것 먼저 먹어야겠구나.” 소년에게 고기와 죽을 섞은 나무그릇 한 사발을 건넸다. “천천히 먹어라. 소금에 절인 소고기로 만든 거야. 우리가 습격했을 때 개네들이 요리하던 종이였거든.”

사무엘은 그릇을 받았다. 천천히 마셔보려 했지만 스치는 맛과 냄새 때문에 꿀꺽하고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기와 모든 것을 게걸스럽게 엄청 빨리 먹어대더니 토하고 말았다.

“천천히 먹으라니까.” 쿵이 담요 말이를 가져와 사무엘 옆에 놓으며 다시 말했다.

“빨리 먹다가 체한다.”

사무엘이 다시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삼키기 전에 조금씩 완전히 씹어내며 먹는 내내 적막이 흘렀다.

‘네가 추울 때는 불과 같겠지. 네 몸 속을 움직이는 불 말이야.’ 소년은 생각했다. 소년은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쿵에게 건네며 그릇에 덜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죽과 고기처럼 반짝거리는 덩어리가 있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거기 있는 거죠? 아저씨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저씨? 해주실 건가요?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아우성 쳤다.

소년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첫 질문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눈이 감겨버렸다. 그리고는 바로 잠이 들었다. 힘이 풀리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생각이 난 건 아직도 바지를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인의 정신

비록 훈련도 불충분했고, 우유부단한 지휘와 비정상적인 식사로 인해 병사들이 때때로 자기 신발을 먹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은 땅을 되찾으려는 싸움으로 위안을 얻었고, 영국 병사들 보다 훨씬 사기가 높았다. 수적으로 열세하고, 저급한 장비로 싸워야 했지만, 이런 정신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전쟁터에서 “사기만 충만하면 4대 1로도 싸울 수 있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 제 10장

이번에는 사람들이 기침해대는 소리와 떨감 나무 장작을 패는 소리가 사무엘을 깨웠다. 눈을 뜨고 나니 통증이 훨씬 줄었고 동이 틀 무렵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소년의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소년은 구르기 시작했다. 바지를 입지 않았다는 갑작스러운 기억과 머리의 통증이 사무엘을 멈춰 세웠다. 침낭은 쿵이 두었던 자리에 바로 옆에 있었다. 바지를 낚아채 잡아 당겨 입고서는 허리에 가죽 끈을 조여 댔다.

머리의 통증이 수그러들었다. 갑자기 움직일 때만 쿡쿡 찔렸다. 상처부위가 당겼고, 누군가가 두피 끝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담요를 풀자 소년의 소총이 거의 헐거워졌다. 방아쇠가 부싷돌과 약실 주변에 먼지가 가득 끼게 만들어 공이치기 판이나 프리젠을 밀어 올려버렸고 총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고, 침낭을 묶고 있었다. 한 남자는 완전히 구부러져 보이는 왼쪽 팔로 비스듬히 떠받치고 있었다. 바닥에 앉아 자기 총을 닦고 있었다. 자신의 총 방아쇠가 너무나 더러워서 사무엘은 창피해졌다. 담요 말이 속 사냥가방을 찾아냈다. 목에 매달고 다니던 화약통이 부착된 주머니였는데, 총을 청소하고 발사할 때 쓰는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안에는 철선 조각이 들어 있었다. 약실과 부싷돌, 프리젠에서 먼지를 불어내 선을 이용하여 점화구를 정리했는데, 화약을 장전하면 약실에서 화염 분출구로 들어갔다. 기름때가 묻은 걸레로 총 전체를 닦아낸 다음, 질 좋은 흑색 화약을 약실에 넣었다. 흑색화약은 부싷돌 섬광이 화약 장전으로 발사하게 하는 점화용이었다. 약실 주변에 프리젠으로 마무리 한 뒤, 공이치기를 반 정도 젖혀 올려 안전 상태로 놓고, 옆에다 두었다.

사람들이 장작을 불이 더 놓자 불이 확 타올랐다. 사무엘은 일어서서 덤불 근처로 가 불일을 보았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듯 했다. 고양이 새끼 마냥 맥이 빠지긴 했지만 말이다. 소년의 몸의 한 부분이 회복 되었고, 다른 쪽도 그런 듯 했다. 머리의 통증이 줄어들면서 뱃속 허기짐이 느껴졌다.

쇠꼬챙이에 꼬친 소의 다리가 완전히 익었다 어젯밤 쿵이 조금 잘라 사무엘의 죽에 넣어 주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사무엘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지 않아서 소년은 망설였다. 수염이 듬성듬성 난 한 마른 사내가 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무엘을 보더니 짧은 칼로 넉넉하게 고기를 잘라 건넸다.

“먹어야해. 우리 오늘 오래 걸게 될지도 모를 테니. 많이 먹어두지 않으면 따라오기 힘들 거야.”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기를 받았다. 매우 질긴 고기였다. 앉아서 고기를 씹고 삼키며, 사람들이 진영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사람들을 지켜보다 먹으면서, 사무엘도 침낭을 돌돌 말아 묶었다. 화약은 말랐는지, 사냥가방은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빨랐다. 끽 끽 거리거나 가리키는 것 외엔 말없이 그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치운 듯 보였다. 소는 멩에가 씌워진 채 나무에 묶여 있었다. 사무엘이 있었던 내림 받이 위에는 소의 양 옆으로 끌채가 이어져 멩에에 부착되어 있었는데 기타 장비들이 가득했다. 조리용 냄비, 담요, 총, 파우더와 위스키 통 외에도 많은 용도로 쓰는 통, 인디언과 영국군이 도망치다 두고 간 드럼통도 있었다. 그 사내는 불가에 와 서서는, 조용히 고기를 잘라 먹었다. 나무 국자로 나무 양동이의 개울물을 퍼 마시고 있었다. 사무엘은 여전히 수 십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고기를 씹으면서 말없이 불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잠자코 있었다. 일곱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자, 서로 씹는담배를 가져다 뺨이나 아래 턱 속으로 찢러 넣었다. 남은 고기를 내림받이 위에 올리고, 파리를 쫓아 낼 수 있게 초록색으로 소를 싸맸다. 그리곤 양동이로 개울물을 퍼 담아가져가 불을 껐다. 수고로움 없이 그들은 길을 따라 이동했다. 두 남자가 앞서 갔는데, 한 면은 왼쪽에서, 다른 한 명은 길의 오른쪽에 있었다. 5명 정도의 나머지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소와 사무엘 바로 앞으로 있었다.

약해진 사무엘의 상태로는 사람들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소가 소년을 살렸다. 사무엘은 소들이 시속 2마일이 조금 안 되게 걷는다는 것을 알았고, 사무엘이 소를 따라잡는데 문제가 없었어도, 다리가 살짝 약해진 것이 느껴지면 소의 옆으로 가서 멩에를 잡고, 한동안 소가 자신을 끌어가는 대로 따랐다. 한 시간 삼십분 마다 앞서 걷던 두 남자가 다른 이들과 교대 했다. 이 주기마다 한 번씩 쿵이 사무엘 곁에 와 걸었다.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던 바였다.

“아저씨가 날 살렸어요. 감사해요.”

“별거 아니었어. 담뱃잎 조금과 질긴 고기 덕분이었지.”

“아저씨가 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전 끝났을 거예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절대 모르는 거니까.”

“다들 왜 오셨던 거예요? 모두 어딜 가고 있었던 거죠?”

쿵은 담뱃잎을 씹어 빨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거의 항상 씹어 빨었다. 한번은 사무엘이 담뱃잎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진흙으로 만든 파이프에 넣었다가 나중엔 씹어도 보았다. 담배 때문에 사무엘은 몸이 많이 좋지 못했었다. 담뱃잎을 씹을 때면 소년의 감각이 무뎠었는데 이 사람들은 늘 씹고 있는 듯 했고, 분수처럼 빨아내고는 했다. ‘아마도 내가 늙으면, 미각이 변할 거야. 그러니 담뱃잎에 관심 갖지 말아야지.’ 사무엘이 생각했다.

“우리는 저기에 합류해서 영국군과 싸울 거야.” 쿵이 턱으로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스턴 시 부근에 모르간의 소총을 시작한 모르간이라는 젊은이가 있어. 우리 모두는 총을 쏘고 그들에게 총 맞을 본 영국군을 넘기지. 그들에겐 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오십, 육십 야드에서 말고는 소용이 없지. 칼, 여기야.” 소의 머리 옆에서 걷고 있던 형에게 가리켰다.

“모르간은 말에 탄 남자를 싸 두 동강 내버렸지. 이 삼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말이야. 항상 그래. 자기가 뭘 쏘는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지...” 쿵은 무리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삼백 야드 거리에서 일 제곱 피트의 종이도 맞출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었지. 정신을 집중했으니 말이야.”

“죽이는 거엔 자신 없어요.”

“거기서 그 인디언을 죽였잖아. 죽은 척 누워 있다가 총구멍을 냈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 인디언이 쏘니 저도 방아쇠를 당긴거죠.”

“부모님을 찾은 다음엔 어쩔 거야? 부모님을 잡아갔던 놈들과 화해라도 하려고?” 사무엘은 담뱃잎이라도 씹고 싶어 졌다. “아직 거기까진 생각 못해봤어요.”

“잘 생각해 보라 그럼. 화약을 말리고 약실을 준비 시켜놨.”

“맞아요. 문제는, 싸워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누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어느 편에 서 있는 건지 말이죠.”

쿵이 코웃음을 쳤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인 놈들이야. 쳐들어와서는 목에 줄을 걸어 끌고 갔지. 나쁜 놈들이야. 너희처럼 선량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무엘이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놀랍게도 소는 바위를 보고 걸리지 않으려고 주춤 거렸다. “왜 영국군과 인디언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 거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왕을 거스른 것도 아니고, 반란 혹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쿵이 담뱃잎을 뱉자 소의 귀 가까이 까지 날라 갔다. 또 코웃음을 쳤다. “영국군은 그냥 영국군이라서 그래.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지. 명령을 따르는 거야. 인디언은 그러라고 고용된 놈들이고. 이로쿼이족이잖아. 영국군을 위해 일하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럴 거야. 프랑스 전쟁 이후부터였어. 그들은 가지고 다니던 약탈품을 돈으로 바꿔 영국군과 거래하지. 함린이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어. 영국군 장교라고 하던데 말이야. 하도 많은 머리 가죽을 사들여서 머리장수 함린이라 부른대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너희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갔는 거야. 저기 보라. 전방에 다다르고 있어.”

일행은 모두 맑은 물이 있는 시냇가에 멈춰서 물을 마셨다. 마차에서 고기를 꺼내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썰어 먹었다. 사무엘은 망설였지만, 칼이 와서 앉아 먹으라며 손짓했다.

사무엘은 시시각각으로 강해지고 있었고, 고기 때문에 불처럼 뜨거워졌다. 쿵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다 먹고 나자 일어서서 담뱃잎을 한 잎씩 씹고는 길을 나섰다. 쿵과 한 사내가 앞장섰다. 사무엘은 소에 묶인 나무 손잡이를 붙잡은 채 말없이 걸었다. 아침나절이라 숲길 양쪽에 난 나무 사이로 해가 비추어 내니 사람

들이 밝고 푸른 터널을 걷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에 벌레들이 빛에 걸렸고, 작은 등불처럼 하얗게 빛을 냈다. 여느 때처럼 사무엘은 그 아름다움에 도취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소년은 쿵이 했던 말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습격자들이 우리 부모님을 죽이지 않은 거지? 이제 죽이려는 걸까? 난 그들 보다 한수 아래야. 육일, 아니 일주일째야. 소를 따라 가야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었는지는 신만이 아실거야. 빨리 가야겠다.' 소년은 생각했다.



## 헤시안

용병을 썼던 영국군도 브라운 베스 머스킷과 총검을 소지했다. 대부분이 헤시안이라 하는 독일 부대 출신이었다. 그들은 전투병으로서 비교적 효과적이었지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기억되었다. 항복한 비무장 포로 병사나 농부, 임신부를 포함한 여성들 뿐 아닌 아이들과 영아들에게도 총검을 휘두르는 등 문명과는 거리가 먼 전쟁범죄를 저질러서 전투하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여겨졌고, 또 그런 대우를 받았다.

## 제 11장

소년은 튀어나온 적갈색 덩불아래에 누워 농장을 살폈다. 이 농장은 야생 한가운데와 매우 가까우니 정말 완벽한 작은 밭이었겠어.

소년이 남자들을 따라 나선지 사흘이 지났다. 점점 더 많은 고기를 먹었고, 더 강해져 갔다. 마침내 소와 나란히 걷는 꾸물거림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일행들은 특별히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제 전쟁이 있을 거야. 지금 혼나나 나중에 혼나나 마찬가지야.” 쿵이 말했듯 그들은 움직임을 조정하며 천천히 가는 듯 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발걸음 마다 점점 미쳐갔다. 결국, 일행이 쉬려고 멈추었을 때, 자신은 계속 가던 길을 가겠다고 쿵에게 말했다.

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널 죽이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자, 네 머리의 꼬맨 실을 제거해 주마.” 말을 하자마자 작업할 준비를 했다.

“네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마다 아마 널 죽이려 들 거다. 그러니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덩불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있어라.” 하며 마지막 실을 제거했다.

더 할 말은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 쿵과 일행들을 앞서 빠른 속도로 걸어 나갔다. 쿵의 조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길을 벗어나 멀리 걸어왔다. 속도를 올렸다.

가져 온 고기는 조금씩만 먹으려고 애를 썼다. 3일 후면, 고기도 바닥이 날 것이다. 조만간 고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숲 속에 사슴들이 벼룩 떼 만큼이나 많이 있었다.

숲을 조용히 지나고 있을 때, 숲 준비를 하려는데, 농가가 눈에 들어 왔다.

농가는 공격을 받지도 불에 타지도 않았다. 성한 농가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 외에도, 완전한 농가였고, 짙어 내린 나무로 만든 국경지대의 오두막도 아니었다. 참, 주변에는 깊은 숲이 있었다. 허나 농가 자체는 편처럼 가지런했고, 전부 하얗게 칠해진 죽데기로 만든 울타리와 목조 가옥이 딸려 있었으며, 통나무는 아니지만 제재목으로 만들어진 헛간이 있었다. 게다가 집은 하얀색으로, 헛간은 빨간 색으로 칠해졌고, 문과 창문은 하얀 창틀로 되어 있었다. 소년이 살펴보자, 마당에 닭들도 보였다.

소년은 몇 가지가 생각이 났다.

첫째는 닭이 맛있을 것 같았다. 구운 닭 냄새를 맡으니 침이 고였다.

둘째는, 그들이 공격받지 않았더라면, 습격자들에게 우호적이었을 테고, 여기를 함께 지나왔을 게 분명했을 것이다.

셋째로, 생각이 수월해 지면서, 집주인이 소년의 철천지원수에게 우호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사무엘이 닭 한 마리를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가져가지?”

소년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지만, 고작 여덟 시간이 지났을 뿐이었다. 앉아서 시간 낭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농가는 빈 터 한 가운데에 있었다. 헛간 가까이에 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나무 사이에서 숨어 있었다라면 닭을 잡기에도 충분히 가까웠을 테고 달아나기도 수월했을 것이다.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년은 움직였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헛간 뒤에 있는 빈터로 빠르게 이동했다. 소년은 집과 헛간 사이에 숨어 몸을 숨기려 했다. 순간 닭 떼가 땅을 쪼는 곳에서 10피트 채 안 되는 헛간에 기대어 섰다. 소년이 막 움직이려 하자, 머리맡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헛간의 다락 문이 열렸다. 여덟 살에서 아홉 살 쯤 되어 보이는 꼬마 여자 아이가 소년을 바라보았다.

“벽 틈으로 전부 봤어. 몰래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널 봤거든. 너 큰 두발 달린 사슴 같더라. 머리는 왜 그러니? 어째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그 뒤편 어찌려는 거였어? 아, 닭들 말이야. 닭 한 마리 가져가고 싶은 거지? 어서 가져가. 어쨌든 난 닭들이 싫으니까.”

사무엘은 깜짝 놀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속삭이듯 꺾꺾 대며 말했다.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다들 저기 윗집에서 식사중이야. 호박을 먹고 있어. 난 호박을 먹으면 토해. 그래서 인형과 놀려고 다락으로 왔지. 어서 가져가. 말 안할게.”

“고마워.”

“저 빨간 큰 놈을 가져가. 나쁜 닭이야. 마당에서 날 쫓아다니며 내 발가락을 쪼아 먹거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지.’ 사무엘은 생각했다. 줄행랑을 칠 작정이었고, 운이 좋아서 그 큰 빨간 닭을 잡을 수 있었다. 닭은 한번 꺽꺽 거렸지만 사무엘이 꼭 쥐자 잠잠 해졌다.

사무엘은 떠날 준비를 하고 돌아보았다. “이름이 뭐니?”

“앤 마리 페니스윅스 클라크야. 근데 다들 애니 라고 부르지” 소녀가 답했다.

“그래, 고마워 애니야. 난 이제 가야겠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애니의 말에 멈춰 섰다. “여기 있었던 남자 같아. 더 늙었고, 머리가 완전히 짧지 않았어.”

“어떤 남자 말이야?”

“남자 몇 명이랑 여자 한 명이 왔었어. 몇 사람은 말을 타고 있었고, 몇 몇은 마차를 타고 있었어.”

그 순간, 엄청 큰 사내가 총을 들고 헛간 끝으로 다가왔다. 그의 어깨는 곰 같았고, 총은 사무엘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엘은 닭을 떨어뜨렸고, 총을 들어 남자의 가운데에 조준했다.

잠시 후, 소년은 총을 내렸다.

사무엘이 총을 내리자, 남자도 따라 총을 내렸다.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다시 심호흡을 했다.

“전 사무엘이라고 해요,” 소년이 말했다.

“ 닭소리를 들으니 난 닭들 사이에 여우 한 마리가 있나 생각했단다.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남자가 어깨를 으쓱 거렸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전 거친 산길을 가던 중이었고, 배가 고팠어요.”

“흠치지 않았어요. 아빠.” 애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개한테 빨간 닭을 가져가라고 얘기 했어요. 자꾸 내 발을 쪼아 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난 절대 배고픈 자를 문 앞에서 돌려보내지 않는단다.” 남자가 말했다. 그는 손을 뺐었다.

“케일럽 클라크란다. 집으로 올라와서 좀 먹으렴.”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관대해서 농부가 적의 편이라는 의심을 잊어버렸다.

사무엘은 남자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펌프로 가서 네 머리를 먼저 씻자구나. 엉망이구나. 엄마가 알면 발작 하실 거야.”

“인디언에게 맞았어요. 나중에 남자들이 와서 꼬매 주었죠.”

“그런 것 같구나.” 케일럽이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몽둥이에 맞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꼬매고 난 뒤 진흙이나 다른 것으로 바르기도 한단다.”

“담뱃잎 씹었어요. 씹고서는 찜질포를 만들어주었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들은 물통과 펌프에 다다랐다. 케일럽은 사무엘의 소총을 잡았고, 사무엘은 고민 없이 총을 건넸다. 케일럽은 양수기 아래에 사무엘의 머리를 받치고 손잡이를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박 문질러라.” 남자는 더 세게 펌프질 하며 말했다.

사무엘은 통증 때문에 움찔하고 놀랐지만 조심스럽게 계속해 나갔다.

마침내 부상 부위가 케일럽이 만족할 만큼 깨끗해졌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갔다.

애니도 뒤따랐고, 아나나 다들까 빨간 닭이 애니의 발을 쪼아댔다. 애니는 비명을 질렀고, 종종 걸음으로 사무엘과 케일럽을 앞질러 집으로 들어갔다.

사무엘은 오두막이 아닌 곳엔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오두막은 대게 먼지 바닥이었거나, 기껏해야 대충 만든 널빤지 바닥이었다. 케일럽의 집은 너무나 좋아 보였다. 마치 사무엘은 적어도 끓인 물로 먼저 씻지 않고서는 조금은 허락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안은 외부와 마찬가지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도장된 하얀 벽과 사탕소나무 마루는 밀랍으로 닦여있어 윤이 났다.

“친구가 왔어” 케일럽이 말했다. “식솔이 늘었네요?”

케일럽의 아내는 마는 꽤 솔직했다, 붉은 볼에 머리는 틀어 올리고 있었다. 뺨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사무엘에게 무뚝뚝한 눈초리로 웃어보였다. 스토브 뒤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서 먹거라. 우린 막 먹기 시작했단다.”

그곳에는 단 세 명만 있었다. 사무엘이 오니 넷이 되었다. 식탁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애니가 말한 대로 호박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단풍시럽과 버터가 녹아 있었다. 구운 사슴고기와 감자, 사과 버터가 발린 빵 한 덩어리와 젤리 종류 조금, 옥수수 대에서 떨어진 통 옥수수 버터 요리도 있었다.

큰 그릇의 요리와 뜨겁게 찌낸 갈색 그레이비 약 1리터가 담긴 그레이비 통들은 사무엘이 그 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다. 케일럽이 버터밀크를 소년에게 부어주자 배가 꼬르륵 거렸다. 각 자리마다 포크와 나이프가 놓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다렸다.

케일럽이 미소 지었다. “식전 기도부터 한단다.”

이상해 보였지만 다들 손을 잡았다. 애니는 사무엘의 왼쪽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앉아 먹기로 했다. 애니도 사무엘의 손을 잡았다. 케일럽의 큰 손이 소년의 다른 손을 쥐었고,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일용할 양식과 친구를 보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곤 식사를 시작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는 접시에 음식을 쌓아 올렸다.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많아 보였다. 소년은 자기 위가 줄어들었다고 확신했지만 음식을 모두 밀어 넣었고, 배가 몹시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케일럽의 아내가 메이플 당이 섞인 크림이 가득 올라간 대황 파이를 가져왔다. 소년은 가까스로 삼켰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제 생애에서도요. 가을 축제 때도 이렇게 훌륭하고 풍족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엔 얹 먹어도 될 것 같네요. 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애니가 했던 말이 생각 나 사무엘은 말을 잊지 못했다. 애니에게 “여기 온 남자들 중에 나처럼 생긴 사람이 있다고 했지.”

케일럽이 말을 끊었다. “영국병사 몇 명이 마차 2대로 포로들을 끌고 여기에 왔단다

그들 중 다섯이었지. 헤시안이 여기 동쪽 농가를 쳤다는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다만, 난 병사들을 대접했어, 병사들은 충분히 정중했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더구나. 그래서 포로들에게도 음식과 물을 갖다 주었어. 한 남자 말이야, 아내가 함께 있었는데 매우 예의 바르고 나에게 감사의 표현도 했었지. 그 사람이 너와 닮았어. 눈과 코가 닮았구나.”

“그 분이 제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고요.”

사무엘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화끈 거리는 눈을 깜박였다. 애니가 소년의 어깨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소년은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애니 때문에 심한 부분은 생략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마는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감추느라 힘이 들었다.

“부모님이 언제 왔다 가셨죠? 얼마나 되었나요?” 소년이 물었다.

“이틀, 아니, 삼일 됐어. 그 사람들 식사가 끝나자 말에게 물을 먹였어. 말이 설

때 까지 기다리는 동안 선임 장교가 작은 여행용 체스 판을 꺼내 더구나. 난 체스 두는 방법을 몰랐지만 너의 아버지는 마차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와 함께 게임을 했어.”  
“아버진 체스를 좋아하세요.”

“그 장교가 다른 병사에게 마을을 습격했을 때 너의 아버질 데려온 이유가 체스 때문이라며, 함께 둘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것에도 많은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생각했다.

소년의 아버지의 목숨은 체스 판 덕분에 살았고, 어머니 또한 그랬다.

사무엘은 서서 말했다. “음식 감사했습니다. 전 가봐야 하겠네요. 3일만 뒤쳐진 거라면, 그 사람들이 천천히 가고 있다는 뜻이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일럽이 말했다. “그 사람들 뉴욕으로 가고 있었어. 그 도시 말이야. 영국이 장악해서 그들이 죄수들을 거기 낚은 창고에 데리고 있어. 낚은 배로 항구에서 나가게 될 거야. 만일 그들이 가는 산길을 따라 잡지 못한다면 거기서 가면 될 거야. 행운을 빈다. 소년아, 널 위해 기도하마.”

사슴고기, 감자와 옥수수, 케일럽의 아내 마가 더 많은 음식을 린넨 천 조각에 더 많이 담아 주었다. 애니와 마는 사무엘을 안아주었고, 케일럽은 악수를 청했다. 여전히 배가 불러 사무엘은 마당을 나와 총총 걸음으로 천천히 무성한 숲에 진입하는 가장 자리까지 갔다.

산길 옆으로 멀리 떨어졌다. 또 한 번, 이 사소한 행동이 사무엘의 목숨을 구해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쟁하는 소리가 났고, 소년의 배로 떨어졌다. 덩불 사이 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높은 모자를 쓴 군대의 조직된 단체였고, 밀집대형으로 빠른 발걸음에 맞춰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큰 암갈색 말을 탄 장교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영국병사들 같지 않았다. 빨간색 대신 고동색을 띠는 제복을 착용했고, 영국 병사들 보다 더 통제가 잘 되어 보였다.

‘헤시안, 독일 군이야.’ 소년은 생각했다.

그들은 사무엘을 빠르게 지나쳤다. 그들의 행진은 케일럽의 농가로 향하는 것 같았다. 궁금하기도 무섭기도 해서, 사무엘은 발을 돌려 옆으로 붙어 50야드 뒤로 떨어진 채 그들을 뒤따랐다.

몇 분후, 공격이 끝이 났다. 헤시안은 마당으로 빠르게 진입해 대형을 이탈해 농가 마당으로 퍼져 들어갔다. 이동하며 닭을 쥐어 잡기도 했다.

케일럽과 마는 현관에 나와 보았다. 케일럽은 무기를 들어 병사들을 조준하고 있었지만 무장상태가 아니었다. 그와 마는 바로 무기를 내렸다. 그러자 병사들이 현관으로 뛰어 들어가 그들에게 총검을 가했다. 애니는 집에서 뛰쳐나와 헛간으로 달려갔다. 세 네 명의 병사가 애니에게 총을 쏘았지만 놓쳐 버렸다. 헛간 주변에 다다르자 나무로 달려갔다.

더 많은 병사들이 총을 쏘았지만 또 놓쳤다. 사무엘은 애니의 달리기 속도에 놀랐다. 애니가 한번 넘어 지자 마치 총에 맞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두 발로 일어서 계속 달렸다.

그들은 케일럽과 마의 시체를 끌고 집안으로 끌고 갔다. 여덟에서 열 명의 사람들이 집안으로 들어가 반짝이는 것들과 보이는 음식들을 모두 챙겨 빼앗아 갔다. 그리고 나서는 집과 헛간에다 불을 붙였고, 불꽃으로 인해 집과 건물들이 맹렬히 타 오르자 병사들은 다시 밀집대형을 통해 빠른 행진으로 마당을 빠져나가 산길로 사라져 버렸다.

십분도 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잔인함, 완전히 잔혹함, 공격의 잔혹성 때문에 사무엘은 구역질이 났다. 등을 구부려 헛구역질을 했다. 케일럽과 그의 아내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죽었을 지도 모른다. 절망적이었다. 앉아 울면서, 집과 헛간이 타는 것을 바라보았고, 재앙처럼 헤시안이 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케일럽과 애니의 엄마 마와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앉아 이야기 했던 것들이 참 관대하고 친절하며 기쁘고 훌륭했었다.

파괴되었고, 사라져 버렸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저지른 추악한 전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사라지고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사무엘은 그들을 돕고, 구하기 위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할 수 있었다.

‘애니를 찾지 않으면, 그녀를 뉴욕에 데리고 가자.’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이가 없는 지 확인하고 나서 빈터 주변을 총총걸음으로 출발해, 덩불을 확인하고, 애니를 찾으며 사무엘이 본 것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애니를 찾아야만 해.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찾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 제 3부

뉴욕 - 1776



## 전쟁고아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은 혁명전쟁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였는데, 악몽, 수면장애, 두통, 복통, 분노, 짜증과 불안을 겪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아이들은 감각이 없거나 무반응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성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 위험과 고통이 끝나자 아이들은 자신들을 돌봐주고 길러주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놀랄만한 회복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혁명전쟁 이후 많은 고아들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성장했다. 공식적인 입양은 매우 드물었다.

## 제 12장

개암나무 덤불 속에 애니가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애니가 사무엘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소년의 옷 끝자락을 부여 쥐며 흐느끼느라 말이 없었다. 삼일 째였다. 잠을 자거나 정신을 차리려 할 때 외엔 꼬박 사흘간은 애니가 사무엘에게서 피트 이상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만 했다. 애니는 사무엘의 옷을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소년이 애니에게 담요를 덮어주고는 불에서 멀리 떨어져 즐기 시작했다. 애니는 거의 밤새 내내 울면서 잠이 들곤 했다.

소녀가 신발도 모카신도 없다는 사실이 소년에게는 신경이 쓰였다. 신발을 만들어 줄 가죽이 없었기에 애니의 맨발은 놀랄 만큼 거칠어졌고, 사무엘이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년을 쫓아왔다.

시냇물을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마가 사무엘에게 챙겨 주었던 조금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첫 삼일 동안은 애니가 물을 마시기는 했지만 먹지 못하자 사무엘은 걱정이 되었다. 3일째 되던 날 밤, 애니가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먹구름 속에서 조금씩 빠져 나오는 듯 했다.

사무엘은 거의 모든 것들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 몇 주 전 있었던 일부터 지금 갑자기 생긴 일들로 부터의 급격한 충격은 매우 엄청나서 사무엘이 폭력과 광기에 지배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아는 것은 이 숲이 유일했고, 여전히 그렇다고 믿었다. 숲을 이동하며 숲의 신에게 감사 드렸다.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 헤시안과 클락크씨 부부를 죽이던 모습과 앤을 죽이려 했던 모습, 습격자들이 이유도 없이 평화로운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숨이 막히고, 속이 부글거렸다.

소년은 그놈들을 벌하고 싶었다.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잔인하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 외엔 생각 할 수 없었다.

‘누구라도 죽일 거야. 빨간 제복 입은 누구라도 찾아내 썩 버릴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소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스스로를 혹사 시켰다. 그런데 불행히도 애니에게는 하루에 15마일을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강행군이였다. 산길이 좀 더 적당했더라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쪽에는 여전히 숲이 있었다. 하지만 부락처럼 작은 마을에는 흔해 보이는 숲이였다. 둘은 종종 마을 사람들이나 행진에서 이탈한 영국 병사들을 보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을 피했다. 사무엘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우호적이었던 사람이라도 믿지 않았다. 애니가 딱 한번 불평했다.

“우리가 산으로 뛰어 들면, 매번 누군가를 보잖아.” 애니가 말했다 “다 나쁜 사람들 일 리가 없어.”

“그렇겠지.” 헤시안스를 생각하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들 중 한 사람은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숨는 거야. 그게 다야.” 사무엘의 앙칼진 목소리 때문에 애니는 반박할 수 없었다.

사무엘과 애니는 나무 옆으로 바짝 붙어 부락과 작은 마을들을 다시 피해 다녔다. 음식을 먹지 못한지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되었고, 사무엘이 사슴을 사냥해 숲속으로 가져가다 부싷돌과 쇠와 화약조금으로 불을 피웠다. 막대기에 사슴 뒷다리를 꽂아 불 위에다 걸어두었다. 고기가 살짝 익자 다리 한쪽을 잘게 잘라 불가에 웅크리고 앉아 먹었다. 사무엘은 아래쪽 등뼈에 붙어 있는

안심 한 점을 잘라내었다. 꽤 작았지만 소년을 잘 구워 나중을 위해 아껴두었다.

둘은 앉아서 뒷다리 전체를 먹어치웠다. 애니의 얼굴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다.

남은 것은 마가 사무엘에게 주었던 천에 싸두고 일어나 다시 움직였다. 사무엘은 일광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을 찾아서 잡아간 놈들로부터 구해 오는 것 외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시나 마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뉴욕은 큰 도시임에 틀림없고, 영국 사람들이 있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도시로 안전하게 진입해 부모님을 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뱃속의 고기 덕분에 나는 듯이 걸을 수 있었다. 걸음이 너무 빨라서 마침내 애니가 숨을 헐떡거렸다.

“속도 좀 줄여. 난 사슴처럼 빠르지 않단 말이야.”

사무엘은 속도를 줄였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멈추어야 했기에 꾸준한 속도를 유지했다. 침낭과 담요를 애니에게 덮어주자 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차디찬 야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피우지 않았다. 연기도, 벌레도, 사무엘에게 즉시 잡힌 모기도 거의 없었기에 국경시대에서 하던 사냥여행처럼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들을 쫓을 수 있는 연기를 피울 불이 항상 있었다.

사무엘은 지쳐버렸다. 애니 만큼은 아니었지만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한 동안 모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 은빛 새 달이 떴을 무렵, 숨 쉴 만큼만 내놓은 채 담요를 뽁뽁 싸매어 자고 있는 애니의 얼굴에 창백한 달빛이 비치었다. 소년의 마음은 소녀에게 가 있었다.

‘애니는 겨우 여덟 살이야, 아마 아홉 살 일지도.’ 소년은 생각했다. ‘애니의 온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 애니 같은 애들이 많이 있을까? 전쟁 때문에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

국경에서 살고 있던 사무엘의 부모님은 그저 남아 어머니는 가꿀 정원을 갖고자,

아버지는 연장 쓰는 법과 집 만드는 법을 익히며, 오로지 일하다 독서하며 사색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원했던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소년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고, 애니의 인생과 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했다.

‘어찌지? 뭘 해야 하지?’ 질문이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소년은 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 맞다. 칼도 있지.’ 사무엘이 비장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그리고는 소년이 나아가고 있는 온 세상이 사무엘을 부정한다고 생각했고,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든, 어쨌든 어울려야만 했다.

어떻게?

나무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뜨니 질문이 소용돌이 쳤고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

## 민간인 사망률

전쟁 중 민간인 사망률은 항상 불충분하게 보고되었고 증명해 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출생과 사망 신고, 교회의 기록, 세금, 이민관련 문서들이 전투로 빈번하게 소실되어 대부분 의 역사학자와 정부는 수치를 예상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수치는 적군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로부터 몸을 숨겨야 했기에 결코 제대로 셈 된 적이 없었다.

한 때 대포와 총과 같은 큰 무기들이 개발되어 군사용으로 이용되면서, 훨씬 더 많은 민간인들이 재수 없게 엉뚱한 곳에서 죽었다.

## 제 13장

나무 한 그루 옆에는 표지판이 있었다. 화살표 모양으로 잘려진 두 판자가 큰 수제 절단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남쪽으로 뻗은 숲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필라델피아-41m” 글씨가 대충 적혀 있었다. 다른 화살은 동쪽으로 뻗어 있었는데: ”뉴욕-38m”

“뭐라고 써 있어?”애니가 물었다. “낫 글자는 알지만 아직 조합은 잘 못해.” 사무엘이 애니에게 말해주었다. “어느 쪽을 가든 비슷한 거리래. 삼일을 걸으면... 숲 길을 벗어나보자. 나에게 생각이 있어. 둘은 관목 뒤로 움직여 숨어서 결정했다.

“무슨 생각이야?”애니가 말했다. “뉴욕으로 가서 엄마 아빠를 구하러 갈거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우리에게’ 라는 말을 들었다. 소녀의 머릿속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모두 견디어 내는 방법을 찾으려는 거였다.

사무엘이 끄덕였다. ‘케일럽 아저씨가 뭐라고 말씀 하셨었지? 아 그래, 뉴욕은 영국 소유지.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속해. 새로운 정부가 있는 곳이지. 부모님은 이곳을 지나치며 이 표지판을 보셨을까? 안전한 피난처가 겨우 40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그리고는 뉴욕으로 가야만 했을까?’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난 필라델피아로 널 데리고 가야해. 안전한 곳이야. 있을 곳을 마련해 볼게.” “싫어.”

“안그러면-.”

“싫다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난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라고. 어딘가에 널 내버려두면 전혀 득이 될게 없을 거야. 난 널 따라 갈 거니까. 뭐라 해도 상관없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거야. 그 뿐이야. 우린 뉴욕으로 갈거니까.”

“내 말은- ”

“같이 가자.”

“-거기까지 갔다 돌아오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육칠일은 걸릴 거야.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좋을 거야.”

“좋아. 해결됐네.”

사무엘이 대충 웃어 보였다. 애니는 몹시 녹초가 되었고, 얼굴과 옷은 꼴이 말이 아니게 지저분해졌다.

머리는 이상하게 빠져나와 있었고, 다리에는 흙이 딱이져 있어서 발에 가죽신을 신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도 애니는 시키는 일이면 언제든 다해내니 사무엘은 동생이 생긴 것 마냥 자랑스러웠다.

“어쩔 수 없지, 일단 가자.”

그들이 뉴욕으로 향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 다음 날 둘은 들밭의 신선한 옥수수가 있는 농가를 발견했다. 밭 가장자리로 기어들어가 저녁식사로 먹을 옥수수 알을 넉넉히 챙겼다.

밭을 나와 산길을 따라 숲으로 돌아가자마자 뒤쪽에서 들려오는 끔찍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바퀴에 무언가가 짹그렁 덜커덩 거리고 있었다. 사무엘과 애니는 가장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가 숨어 뒹눴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근처에서 멈춰섰다. 조용해지자, 개들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애니와 사무엘이 움직이려는데, 하얀, 검정 목양견 두 마리가 덤불 속으로 다가와 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길가로 개들을 밀어내려고 사무엘은 어깨를, 애니는 다리를 살며시 움직였다.

“야! 저리가!” 사무엘이 속삭였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나오는 게 좋을거야.” 굵고 깊은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선회포 두 자루로 너희들을 조준할 거야.”

“넌 여기 있어. 네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볼게.” 사무엘이 애니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애니는 가만히 있질 못했고 둘은 함께 일어서서 개들을 살살 몰아내며 덤불 밖으로 걸어 나왔다.

큰 화물용 마차가 길가에 있었다. 양탄자 묶음, 현수막처럼 묶여 있는 양철 냄비 자루, , 안장과 빈 통들, 양동이와 흔들의자 까지 갖가지 물건이 쌓아 올려져있어 거 대해 보였고, 피뽕뽕한 노새가 끄는 바퀴는 고물 더미 같아 보였다.

“무슨 일 있니?” 마차에 앉은 아저씨가 담뱃잎을 씹으며 물었다. 심한 스코트랜드 식 사투리 때문에 사무엘이 알아듣는데 힘이 들었다. “내 이름은 아브너 맥도글 이란다. 떠돌이 집시란다. 그리고 애들은 윌리엄과 윌리스야. 스코트랜드 영웅의 이름과 같단다.” 사내는 사무엘의 총을 보더니 손을 들어 올렸다. “쏘지 마라. 선회포 애긴 장난이었어. 보시다시피 나한테 무기가 없단다.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사내는 누더기를 기워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고물들처럼 어수선해 보였다. 목소리는 쇠로 된 삽이 무덤 속에 바위와 부딪힐 때처럼 끔찍하게 귀에 거슬렸고, 머리는 헝클어져 덩수룩했다. 씹을 때 똑똑 떨어지는 담뱃잎 국물이 턱수염 아래에 흥건했다.

“전 사무엘이에요. 애는 애니구요.” 사무엘이 말했다.

아브너가 끄덕였다. 노새 앞에서 움직이고 있던 개들을 바라보다 뉴욕으로 가는 산길을 살피보았다.

“마차 뒤에 타렴.” 아브너가 말했다.

“네?”

“마차 뒤에 타라니까. 총은 숨겨 뒹. 빨리, 이제 나쁜 놈들이 올 테니까.”

“나쁜 놈들이요?”

“어서, 총을 숨겨.”

아브너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대꾸할 틈도 없었다. 사무엘은 애니의 손을 잡고 마차

뒤로 올랐다. 뚜껑 없는 마차에는 겨우 둘의 다리를 놓을 공간만 있었다. 사무엘은 옷감 더미 아래에 총과 화약통을 숨겼다.

물건들을 숨기자마자 말발굽 소리가 들려 왔다. 영국 기갑부대 기마병들이 마차 앞으로 다가와 멈췄다. 빨간 제복에 털모자와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착용한 기사들이 20명 쯤 있었다. 작은 총과 군도도 들고 있었다. 말들은 땀투성이가 되어 코를 킁킁거리며 거센 숨을 쉬고 있었다. 무리들은 대열에서 나와 마차 주변으로 갔다. 아브너가 말을 꺼내기 전 까지 두 병사가 군도를 꺼내어 양쪽의 짐들을 찢어보기 시작했다.

“거긴 조심하세요! 안에 아이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장군이 아브너 옆으로 다가왔다.

“제 손자들입니다. 칼로 찌르지 마세요.”

“어딜 가는 거지?”

“뉴욕으로 가고 있습죠. 저는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찾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금지된 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겠군.” 장군이 마차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밀수품은 없나?”

“밀수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군께 받은 상인 통행권도 있습니다. 수기로 서명 받았고 날인도 찍혀 있어 효력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고.”

사무엘은 종이를 주고받으며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차 앞쪽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는 장교의 통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담 가도 좋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게 있나 지켜보라구. 우린 막 뉴욕에서 왔다. 반란 도주자들과 탈영병들이 필라델피아로 향하고 있어.”

사무엘은 자신을 쳐다보는 마차 뒤쪽의 기병들을 바라보았다. 한 병사가 애니에게 웃으며 고개를 까닥였다. 하지만 애니는 눈을 크게 뜨고 턱을 짝 다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렬!” 장교가 명령을 내리자 병사들은 말을 대열에 합류시켜 타고 지나갔다.

“가자, 브르투스! 가자 질!” 아브너가 고삐를 철썩 내리치니 노새들이 끄끄끄거리며 마차를 끌기 시작하자 천천히 앞으로 굴러 갔다.

“병사들이 안 보일 때까지 마차에 그대로 있어라.” 아브너가 말했다. “갈 때까지 말 이야. 그런 뒤 앞으로 와라, 얘기 좀 해야겠구나.”

사무엘은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럼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며 거짓말을 했다.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렇지만 아브너를 믿어보기로 했다.

소년은 모퉁이에서 기병들이 사라지는 것들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짐 옆을 따라 올라 노새 등에서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애니가 아브너 바로 옆 가운데로 자리를 잡자, 사무엘은 바깥쪽을 택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란 걸 어떻게 아셨죠? 사무엘이 물었다.



“개들 때문이지. 개네가 알려 준거지.”

“개들이 알려주었다고요?” 애니가 비웃었다. “전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넌 듣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개들이 사냥감을 가리키는 방법 말이지, 귀와 등의 털로 위치를 가리킨단다. 네가 개에 대해 잘 알고, 개들도 너에 대해 잘 알게 되면 말이야, 예상된 뭔가에 대해 알려 준단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군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아브너는 노새의 고삐를 힘껏 내리쳤다. “빨리 움직여! 빨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가오자 덤불 속에 숨은 건 너희들이야. 여긴 영국군이 주로 다니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총을 쏠 준비를 하고 나왔잖니.” 그가 웃었다. “그게 친구랑 하는 짓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렵구나.”

“우린 영국군이 싫어요.” 애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정말 나빠요. 다 천벌 받을 거예요.”

사무엘과 아브너는 애니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였어. 우리가족도요...” 애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내 발을 쪼아 먹던 그 빨간 닭도 보고싶어요.” 애니는 사무엘의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던 게냐? 얘기해 보는 게 좋겠구나.”

그러자 사무엘은 놀라며 깊은 숨을 내쉬기만 했다.

## 뉴욕

뉴욕은 영국 부대의 포로들이 잡혀 있던 중심가 였다. 1776년 말, 5000명이 넘는 포로들이 있었고, 도시의 인구가 2만 5천명 뿐 이어서, 도시 한계 이내의 20퍼센트 이상이 포로들이었다.

그 당시에, 뉴욕에는 감옥이 겨우 하나만 있었던 관계로, 영국군이 포로를 창고용 건물이나, 항구에 정박한 영국 해군함에 가둬 두어야 했다. 비록 이 함대들이 350명의 선원만 수용할 수 있었으나 영국군은 1000여명이 넘는 포로들을 가두었다.

일한 공중변소는 양동이 하나였는데, 금방 가득 차버려서 죄수들의 잠자는 방까지 스며 들어갔다. 질병도 만연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대 여섯 명의 죄수들이 죽어갔지만, 나중에는 미국 병사들이 실제 전투에서 보다 감옥 안에서 더 많이 죽어갔다.

## 제 14장

애니가 듣고 있어서 사무엘이 실제 겪었던 것 보다 덜 잔인하게 전달했음에도 사무엘이 습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아브너는 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아브너가 기침하며 노새사이로 담뱃잎을 뱉어내었다.

“그래서 네가 너희 마을 사람들이 뉴욕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마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땅이니까, 영국군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 같아요. 케일럽 아저씨도 그들이 뉴욕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대요.”

“일단, 네가 뉴욕으로 간다 치자, 그 다음엔 네 그 작은 총을 가지고 가서 빠져 나올 계획이란 말이지?”

“글쎄요. 아뇨. 제 말은...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영국군 바로 한 가운데로 몰래 들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시면, 제 생각에는...”

“부르크린 하이츠만 가는데 전투부대가 14,000명 정도라고 들었다. 유럽인들도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쳐서 싸워보지도 못했다고 해. 아마 25,000병력 곳곳에 우글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넌 거기 한 가운데에 뛰어들겠다는 말이잖니? 벌떼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일 게다.”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쫓아가 찾아낸다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찾는다면요.”

“내가 무슨 생각 하는 줄 아니?” 아브너가 사무엘을 바라보았다.

“전 모르죠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단다.”

“네 아저씨, 아 제 말은.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내 늙은 검둥오리와 개 두 마리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겠구나. 내게 생각이 있단다.”

“그러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엔 아저씨는 어디든 갈 수 있는 통행권도 있으시면서, 저희를 도우면 통행권을 잃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려고 하세요?”

아브너가 코웃음을 쳤다. “통행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게 필라델피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말이야.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낱자와 서명할 칸을 비워서 똑같이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지. 진짜처럼 보이게 말이지. 내가 빈 칸에다 장군 이름을 써서 서명도 했어. 실패한 적이 없어.”

“그건 제 질문에 답이 아니잖아요. 저희를 돕는 문제요.” 사무엘은 노새 앞에 있던 개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 마리가 앞을 골똘히 내다보더니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오고 있어.” 애니가 말했다. 애니도 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멈춰야할까요?”

“병사들은 아닌 것 같구나.” 어깨를 으쓱거리며 담뱃잎을 뱉어내며 말했다.

“이동하는 사람들일 거야. 뉴욕을 빠져나오는 것일지도 모르지. 병사들이었다면 개들이 앞에 계속 서서 주시했을 거다.”

“개들이 그걸 어떻게 알죠?”

아브너가 머리를 흔들었다. “네가 개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지. 개들은 공기 중이나 땅 속에 있는 것들도 감지하지. 때로는 코를 내려서 구분해 내기도 해. 개들은 항상 정확하단다.”

이번에도 개들이 울었다. 짐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브너의 마차만큼 가득하지는 않았고 노새가 아닌 소들이 마차를 끌고 있었다. 소들 옆으로 한 사내가 소를 안내하던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마차 위 의자에는 세 네 살 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들은 정면을 향해 지나가고 있었고 사무엘은 그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사내는 아브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브너가 외쳤다. “용의 머리여. 서쪽 길을 돌아라.”

“고맙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판단력을 소중히 여기고, 모습을 감출 것이다. 만일 아직도 변함이 없다면 필라델피아로 내려가라.”

“변함없지요. 무탈한 여정이길 바라오.” 아브너가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도요.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도요.”

그리고는 그들은 가버렸다.

“왜 영국군들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저 사람들도 통행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다. 누구든 내가 가진 것처럼 통행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만 병사들이 항상 문제인 것은 아니란다. 어떨 때는 물건들을 가져가서 거칠게 행동하고 다른 때는 법을 따르는 듯 보이기도 해. 그들이 헤시안이 아닐 뿐이지. 그럴 땐, 통행권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 아브너가 머리를 흔들었다. “헤시안과 다름없어. 처음부터 악랄했지.”

애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조용히 있어 애니가 아브너와 자기 사이에 앉아 있는 줄도 몰랐다. 애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고, 말 한 마디마다 갈라질 것 같았다. “정말 악당들이예요.”

애니가 잇기 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다. ‘아마 사는 내내 잇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기에 난 애니를 탓 할 수 없어. 애니와 같은 마음이고 총검에 당한 부모님도 아직 보지 못했으니 말이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아브너에게 했던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아브너는 아직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아저씨가 우리를 도우려는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위협에 처하시는 거 아닌

가요?” 소년이 물었다.

“나 혼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구나.”

“대답 안 해 주실 거예요?”

“이것 좀 밀어 줄래?” 털에 있는 담뱃잎 얼룩 때문에 말하기 힘들었지만 아브너가 웃어 보였다. “열심 해야 굶어 죽지 않는단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위험을 무릎 쓰면서 까지 저희를 돕겠다고요?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감사하고 엄청 감사하지만...”

“그래, 생각해 보자구나.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말해 주세요.”

“첫째는 말이야. 너희가 나이가 들면 어떤 것의 어떤 일의 끝을 감지하게 된단다. 그러면 너의 머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내기 시작하지. 좋은 싫든 말이지. 불 속에서 구워지는 고기를 바라본 적이 있을게다. 배가 고파지고, 먹을 준비를 하게 되지. 혹은 홀로 앉아서 햇살 가득한 나른한 오후에 서있는 노새들을 지켜본 적도 있겠지. 너의 머리도 네 인생을 재고 빼고 더하기 시작하겠지.

“무슨 말이에요?” 애니가 아브너를 바라보았다.

“음, 그건 말이야 내가 옳은 일도, 잘못된 일도 많이 해왔단 얘기지. 한 가운데 그 어린 낚시줄 같은 거야. 아마 언젠가 네가 누군가 마차에 짐 실는 것을 도와 준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좋은 일들이 계속되겠지. 또는 네가 누군가가 원하는 파이 한 조각을 먹어 버렸다면, 나쁜 일이 계속된다는 거야.”

“음, 저희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사무엘이 물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고 옳은 일은 하나요?”

“우리는 그러길 바란 단다. 하지만 늙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된단다. 네가 어렸을 때는 옳고 나쁜 것들을 잊게 되지만, 일단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된단다.” 나는 내가 짓을 거의 떼던 순간을 포함해 스코틀랜드에서 엄마에게 대들던 때부터의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여기 오는 내내 투입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내가 먹지 말아야 할 빵조각을 훔쳤었던단다. 거기서 부터였어. 그걸 먹고 난 뒤 이 분도 채 안되어 토해 냈지만 말이다.“

아브너가 코웃음을 치며 담뱃잎을 뱉었다. 이번엔 노새의 코 근처까지 닿았다. “난 배를 타는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처음으로 탔던 그 배가 한번 흔들거렸는데, 가는 내내 너무 아팠어.”

걸어가는 젊은이 몇을 마주치자, 아브너는 마차를 멈추었다. 그들은 분명히 도망치는 듯 보였다. 셋 중 한명은 왼쪽 팔에 봉대를 감고 있었다. 총총 걸음으로 산길을 따라 걸으며 손을 흔들며 왔다. 아브너가 남자들에게 기병들에 대해 주의를 주자 그들이 끄덕였다. 사무엘은 그 남자들이 산길을 벗어나 덤불 속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자신보다 그들이 더 많은 싸움을 해봤을 테니 더 많이 알 거라 생각했다. 사무엘은 자신과 애니가 아브너를 우연히 만나지 못

했더라면 계속해서 수풀 속으로만 다녔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숲에서의 삶일 뿐이었을 텐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니 말이다.

“거기 두분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까지 남자들을 쳐다보며 사무엘이 말했다. 만약 기병들이 돌아와 그들이 발각되면, 아마 죽을지도 몰랐다. 길을 따라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들을 죽인다니 모두 미친 것만 같았다.

“우리를 돕는 두 가지 이유에서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거의 부질없었구나. 내 말은 사실이란다. 내 말이 살짝 장황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 진 것 같구나. 그래도 난 전해진 그대로의 방식이 좋단다. 어딘가에 쓰인 사실일지도 모르잖니.” 아브너가 빙그레 웃어 보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다 보니 성숙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지.

아마도 적어놔야 하겠구나. 언젠가 누군가는 읽고서 내가 원래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 주겠지.

‘주여, 혼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낸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군요.’ 사무엘은 생각했다. 소년은 기다렸다.

“하지만 순간은 짧지, 중요한 것은 난 싸우기엔 너무 늙었다는 거야.” 아브너가 웃었다.

사무엘이 애니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애니는 움찔했다.

“난 쓸모 있는 고철들이 좋단다. 이것들에게도 난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소식을 전하는 거야.”

“아저씨, 스파이에요?”

“그건 아니란다. 그건 참 어려운 말이야. 영국군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나를 처형시킬 거란 것을 알고 있어도, 난 끝까지 들을 만한 일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지. 예나 지금이나 물건들을 사고팔면서 소식을 전달하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돕기도 한단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서 난 싸울 수 없어. 하지만 영국군에 반대할 사람을 돕는다면,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싸움을 하는 것처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되지. 너도 영국군을 싫어하잖아.”

산길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개를 지켜보며 사무엘이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됐어요. 감사해요, 정말.”

## 비밀 통신

미국과 영국군 모두 자신들의 통신을 위장해 적으로부터 발각되었을 경우, 메시지가 쉽게 읽힐 수 없도록 했다. 미리 준비된 다른 말이나 글자로 대체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해야만 했다.

하지만, 수학적 암호들이 시도되었음에도 비밀 암호들이 빈번하고도 쉽게 해독 되었고, 특히 한 곳에서 부터 다른 곳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복잡성이 효율성을 제한했다. 어떤 화학 약품이나 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투명한 잉크뿐만 아니라 팜플릿, 연대기와 같은 일반적인 출판물에 숨겨진 메시지들도 민감한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는 주 로 흔한 방법들이었다.

## 제 15장

뉴욕까지 가려면 며칠이 더 남았다. 그곳에서 난민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일부는 군인이었던 자들이거나 전투원들이었다. 대부분 부상을 입었고 붓대를 감싸고 있었다. 아브너는 마차를 멈춰 세우고, 붓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감싸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술과 아편을 절반씩 섞어 만든 진통제인 아편던크도 주었다. 부상이 심각한 이들에게는 작은 병 하나를 건네주었다.

“아껴 먹도록 해요.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을 거요. 길에서 멀리 떨어지시오. 영국군이 근처에 있으니까.” 아브너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와 노새들이 이끄는 마차와 수레가 줄지어 그들을 지나쳤다. 그들 중 상당수는 병사들이었고, 거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가족 단위도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하는 거야' 사무엘은 숲길에서 일어났던 처참함이 떠올랐다. 분명히 안전한 곳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헤시안, 병사들, 모두 야만인들뿐이었다. “필라델피아로 가나요?” 아브너가 끄덕였다.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브너가 마차를 몰아 뚫고 지나가기가 힘들었다.

“이 사람들은 영국군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애니가 물었다. 한 팔에는 인형을 끌어안고 터덜터덜 따라 걷고 있던 여자아이를 보자 애니는 울컥했다.

“그렇지도 모르지. 내가 말했듯 그냥 병사들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 몇몇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는 충성스러운 영국인들이었다. 영국군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지. 이제 영국왕은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이 되어 버렸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지도 모른 채 따르고 있었지. 3천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떻게 되든 신경도 쓰지 않는 정신 나간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에 사람들은 넋덜머리가 났어.” 아브너가 말했다. “미쳤다니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물었다.

“조지 왕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길 왕이 살짝 미쳤다고 하더군. 미쳐 날 뛰면 사람들이 붙잡아 주고, 왕이 옷을 찢어 놓으면 옷을 입혀주고, 자살 할까봐 잠들 때도 지켜 보았 대지. 조지는 왕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못돼.”

“그 왕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 자체가 정말 미친 짓이라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였다. 아마도 미친 사람이 시작한 짓일 지도 모른다.

“아마, 아닐 거야. 저 먼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바다 근처 보스턴에서 시작된 거란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대우 받는 게 싫었으니까.”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개들은 때때로 앞장을 섰다. 꼬리를 흔들기도 했고, 다른 이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뒤처지면 아브너가 마차를 세웠다. “영국군이 온다.” 만약 아브너가 개들을 보지 못했더라도 어쨌든 그는 알아차렸을 것이다.

애국병과 같은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난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병사들은 일렬종대로 행진해 오고 있었다. 헤시안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었다. 이백에서 삼백여명 쯤 되어



보였고 사무엘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니 보급품 마차를 뒤따라 장거리 행군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제대로 길을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자 마차를 움직인 것 말고는 위협적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지나가다 멈추지도 않았다. 아브너가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날이 어두워지려하자 그가 말했다. “오늘 여기서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옥수수과 사슴고기를 먹었지만 금새 허기가 졌다. 사무엘은 내일은 총을 숲으로 가져가 사슴을 꼭 잡고야 말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말은 누군가 우리에게 요리를 해줬으면 한다는 거지. 저기 농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면...”

아브너가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농가 하나를 가리켰다. 하얀색 울타리와 하얀 집한 채가 있었다. “바로 저기”

사무엘과 애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집을 보자 사무엘은 헤시안이 닥치기 전 있었던 애니의 집이 떠올랐고, 애니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지 궁금해졌다.

도시에 더 가까워질수록, 농가들이 더 많았다. 어떤 집들은 좋아보였고, 아름다워 보이기 까지 했다. 헤시안 일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다른 집들은 공격을 받았고, 불타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 어떤 논리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브너가 뜰 가까이에서 마차를 세웠다. 손으로 펄프질해 쓰는 나무여물통이 보이자 새가 다가와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브너, 사무엘과 애니가 마차에서 내렸다.

“나도 좀 마시자. 노새들은 말들처럼 많이 마셨다고 화내지 않아.” 케일럽 씨네 집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빨갭게 칠해진 헛간 하나가 있었다. 사무엘은 애니를 슬그머니 쳐다봤지만 애니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한 남자가 헛간에서 나왔다. 키다 크고 마른 체형에 험어빠진 중절모를 머리 뒤로 밀어 넣어 쓰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아브너가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아브너 맥두걸입니다. 이 집에 오게 되어 영광이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질 좋은 숯돌 물레가 있습니다. 저는 집과 들에서 쓰는 모든 연장을 수리하고 다듬죠. 저와 아이들에게 한 끼만 주신다면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저...”

“그 외에도 천을 사고팔죠. 집 내외분께서 부드러운 옷감을 필요로 하신다면 린넨 천도 한번 보시죠.”

아브너 너무 빨리 얘기해 남자가 말할 틈이 전혀 없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필요 없으시다면 저희는 가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노새가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가 모자를 벗어 머리를 문질렀다. “저, 저에게 숯돌을 쓸 수 있는 낫이 몇 개있소. 마샤한테도 땀질해야 할 칼 몇 개가 있을 거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드리죠. 썸. 칼가는 물레를 가져와 물건들을 갈아 보자꾸나.”

평생 살며 썸이라 불린 것은 처음이었다. 사무엘은 마차로 가서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를 옆으로 지워두자 칼 가는 물레와 발판이 달린 목재 틀, 돌에 물을 부을 때 쓰는 양철 컵이 보였다. 사무엘이 그것들을 꺼내자 물건들 아래로 선이 감겨져 있는 상자가 보였다. 그 안에는 새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가까이 가 살펴 보자 살아있는 비둘기였다. 이상했다. 비둘기들이 거기에 있을 줄은 몰랐다. 칼 가는 물레를 꺼내어 여물통 옆에 두었다. 양철 컵을 채워 물레 위 선 옆에 걸어두면 작은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와 한 방울씩 돌 위로 떨어졌다. 남자가 밀이나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구부러진 날이 세 개 달려있는 낫을 꺼내왔다.

아브너가 물레 옆에서 하나를 받아 사무엘에게 다리로 펌프질을 하라고 신호를 줬다. 숯돌이 돌자 아브너가 그 위로 첫 번째 날을 갖다 대었다. 쇠뿔 고철끼리 마찰하는 소리가 나며 쇠 가장자리가 면도날 같이 매우 날카롭게 갈렸다. 사무엘은 숯돌이 쉽게 돌아가자 놀라워했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참 평화로워 보이는 듯 했다. 낫을 다 갈 때 까지 계속해서 펌프질 했다. 다른 날 하나를 갈며 사무엘은 다리를 바꾸어 펌프질 하였다. 다리가 살짝 빠근해졌다. 남은 하나를 갈 때, 다리를 다시 바꾸었다. 다리가 더 빠근해졌다. 그 때 도끼 세 개, 곡괭이 두 개, 손도끼 하나, 나무 쪼개는 썰기 모두 여섯 개, 그리고 도축용 꼬챙이 칼 네 개와 종일 웃고 계시던 작고 마른 마사 아주머니가 가져 온 고기용 칼 네 개를 모두 갈았다. 그리고 나서 얼음용 끌 하나, 톱니 모양의 건초용 칼 두 개, 나무 판자용 자귀 2개, 판자 지붕용 손도끼 하나 그리고는 미카라는 농부가 가져온 옥수수를 자를 때 쓰던 구식 기병 군도를 끝으로 모두 갈아냈다.

사무엘은 손을 씻으려고 여물통에 가려다 휘청거렸다. 아브너는 머리를 통째로 물속에 집어넣어 강아지처럼 흔들며 댔다. 물속에서 머리를 빼내고는 수염을 빗어 내렸다. 사무엘은 미카가 자신에게 웃어 보이는 것을 보았다. 미카는 뭔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무엇을 보는 거지? 뭔가 알아보는 건가? 마치 서로 알기라도 하는 건가?’

식사는 훌륭했다. 케일럽 아저씨네 집에서 먹었던 음식만큼은 아니었지만 사슴고기 스투, 햇감자, 금방 만든 버터가 곁들여진 빵, 메이플 당으로 만든 사과파이, 그리고 헛간 육류 저장소에서 가져온 신선한 버터밀크, 사무엘이 먹기에도 많은 양이었다. 소년은 부끄러워 잠시 망설였지만 마사가 계속 먹을 것을 덜어 주자 감사히 먹었다. 소년의 삶에서는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드문 일이었다. 심지어 전쟁 전에도 그러했다. ‘전쟁 전이라니’ 그런 생각에 갑자기 소년은 움찔했다. 숲에서 주로 사냥을 해 먹고 사는 소년의 삶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다. 거의 들어 보지 못한 손님 같은 존재였기에 어지 할 바를 몰랐다.

소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케일럽과 애니의 엄마 마 아주머니, 그리고 미카와 마사가 즐거운 식사를 만들어 주었듯, 초초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 세 번째 파이를 집어 들었다. 애니 마저도 게걸스럽게 먹어댔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현관으로 나가 앉자 카와 아브너가 난로가에 앉아 석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내가 이곳에 들 때 마다 음식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군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듯 아브너가 말했다.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요리를 잘 해요” 미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미카가 못하는 게 거의 없답니다.”

사무엘과 애니는 현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로 앞에는 흠이 묻은 개들이 있었다. 애니는 막 졸음이 쏟아졌지만 사무엘은 애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다. 소년은 막대로 흠에 그림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막대가 움직이자 개들은 이따금씩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았다.

“뉴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 아브너가 물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미카가 머리를 저었다. “그다지 많지는 않소. 영국인들이 죄수 한 무리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소. 영국인들이 집들을 탈취한다 해요. 우호적이지 않은 놈들이 오. 당연히 우호적이지 않으니 망할 헤시안도 끌어들었지. 그런 살인자들을 쓰다니.”

“내가 준 통행권은 문제없지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 쓰레기 청소부들이 우리를 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거친 그 놈들이 당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보고 죽일지도 모르니 말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 있잖소, 안 그래요?”

“그렇죠. 떠날 사람들이 좀 더 있소. 헛간 뒤에 토끼우리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어요.”

“예전과 다름없군요. 오늘 저녁 하나를 보낼 테니, 뭔가 큰일이 생기면 하나를 내보내시오.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을 이끌고 있는 큰 파견대 하나를 보았소. 아마 이백여명 쯤 될 거요. 그들이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하오.”

“만일 매들이 그를 잡지 못한다면, 그들 중 누군가가 매를 어떻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렇겠군요. 항상 그렇기도 하니까. 항상 변수가 있으니 말이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잖소”

‘비둘기들은 소식을 전달할 때 쓰잖아.’ 사무엘이 생각했다. 소년이 아브너를 곁눈질로 힐끔 바라 보았다. 소년이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남자들이 한 동안 말없이 담배를 태웠다. 그러다 아브너가 이야기했다.

“포로 몇 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죠. 썸의 부모님들은 군인이 아니었는데도 어쨌든 포로로 여긴 것이겠군요.”

“그럴 거예요.” 미카가 끄덕였다.

“말도 안 돼. 들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포로라고 생각하다니. 빌어먹을. 곡식들이 저절로 자랄 거라 생각하는 거와 뭐가 달라.”

“죄수들을 어디에다 가뒀는지 아시죠?”

“확실히는 몰라요. 창고가 있고, 오래된 사탕수수 압착기가 있다는 것 뿐. 사탕수수

를 짜려고 지은 3층짜리 건물 기억나시겠소?”

아브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가 따라 위치한 건물 말이에요.”

“네. 영국군들이 아마 그렇게 쓰고 있지 않나 싶네요. 창고도 마찬가지겠죠. 수천 명의 포로들이 그 곳에 있소. 어떻게 음식을 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소. 그들 상당수는 부상을 입었을 테고, 좋은 환경일 리가 없소.”

“그렇겠죠.” 아브너가 말했다. 현관 옆으로 파이프를 두드리자 개들이 일어나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다. 사무엘은 개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개들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우리 예상대로 되겠군요.” 아브너가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오늘밤 여기서 묵고 가도 될까요? 일찍 자리를 뜨겠소.”

“왜 안 되겠소? 다락에 새 건초로 잠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불만 피우지 않으면 되오.”

그리고는 마구를 푼 노새에게 건초를 먹이고 밤새 동안 있을 우리에 풀어 놓았다.

아브너가 천천히 헛간 뒤 토끼우리에 비둘기 두 마리도 놓아두었다. 얇은 종이에 무엇인가 적어 세 번 째 비둘기에 묶어 날려 보냈다.

아브너와 사무엘과 애니는 비둘기가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오늘 밤 어딘가에 내려 쉬겠지.”

“쭉 날아가면 40 마일이 채 안 되는 거리니 성공할테지. 생각만 해도 대단해. 시속 40마일로 하늘을 날다니 말이야.”

사무엘이 토끼 풀 가득한 새 건초 더미에 눕자 애니가 잠이 든 듯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쌓여 있는 건초 꾸러미위로 몸을 기대어 아브너에게 말을 걸자 건초 더미 모서리 위에서 사무엘의 몸이 흔들렸다. “아저씨와 미카 아저씨는 보이는 그대로는 아닌 분들 같아요.”

“우린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야. 정확히 아마 살짝 그 이상일 지도.” 아브너가 재미있다는 듯 웃어 보였다.

## 민간인 첩보

일반인과 민간인의 스파이 네트워크가 혁명전쟁 당시 미국 첩보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일상적인 생활과 일을 통해 영국군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농부나 상인과 같은 남성과 여성들이 미 당국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주기도 했으며, 일부 애국지사들은 친영 모임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영국군의 군사 작전과 방어, 보급품 및 전투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 제 16장

사무엘이 도시라고 불렀었던 곳에 다다르자 얇고 긴 언덕이 있었다. 아브너가 언덕 꼭대기에 노새를 멈춰 세우고 여전히 15마일이나 더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사무엘은 그런 곳을 상상조차 해 본적 없었다. 물 가 옆 육지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사무엘이 본 적 없었던 또 다른 것이었다. “이게 그건 가요?” 소년이 물었다. “저 물이 큰 바다의 부분이라는 거죠?”

“저 건 허드슨 강이란다.” 아브너가 탄식하듯 말했다. 부락에서 부락으로 이동해가며 마지막에 본 것 들이 각각 더 커 보였다. 사무엘과 애니는 계속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뉴욕인가요?”

“저건 뉴욕도 아니란다. 아브너가 말했다. ”아직 아니란다. 우리 지금 뉴저지에 있는 거란다. 안개너머 강 건너 저 곳을 보렴. 저 곳이 뉴욕이란다. 우리는 여기에다 마차와 노새를 두고 배를 타고 건너 갈 거란다.”

“우릴 도와 줄 사람을 알고 있지?”

강으로 이어지는 갯벌 아래로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수십 척의 배가 보였다. 몇 척은 크고, 또 몇 척은 작았으며 강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저기 안개가 끼어서 큰 도시처럼 보이는 게 무엇인지 간신히 알아 볼 수 있었다. 크고 거대해 보이기만 했다.

“여기서 기다리렴, 가서 친구를 찾아보마.”

마차와 강 사이로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소와 말과 노새가 가득한 울타리 쳐진 가축 우리도 달려 있었다.

아브너가 자신과 너무나 닮은 한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아주 좋아” 그 남자는 낡은 옷차림에 흰머리가 여기저기 나있었고 턱 아래로 담뱃잎을 뺏어내고 있었다.

“여기 매튜가 우리를 강 건너 데려갔다 다시 데리고 와줄 거란다. 우리 각자의 할 일을 해왔단다. 우리가 하는 일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지. 매튜에게 오래 걸리지 않길 바라며 만일 가능하다면 어두울 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해두었지. 이곳에 마차와 노새, 개들도 매튜의 부하들에게 맡기고 갈 거란다. 우릴 위해 준비시켜 놓을 거야. 사무엘 칼을 가져가도 좋지만 총은 여기에 두고 가렴. 어디든 병사들이 있어서 네 총이 이목을 끌게 될 거다. 애니, 넌 여기서 기다려야 해.”

“싫어요.”

“그래야해”

“사무엘인 제 전부란 말이에요.”

“곧 돌아 올거란다. 이 일이 잘 먹히면 두 분이 우리와 함께 돌아 올 거야.”

“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해.”

애니가 사무엘을 바라보았다. “꼭 돌아 와야 해”

“꼭 그렇게.”

“내가 말했지. 안 그랬단 봐.” 사무엘은 애니가 우는 것을 보고 목이 매었지만 우는 모습을 보여 줄 수는 없었다.

“걱정 마” 소년은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실은 사무엘도 아는 바가 없었다. 사무엘의 부모님이 거기에 있는지 그들도 확신 할 수 없었다. 소년은 강 너머를 바라 보았다. 늦은 오후가 되자 햇빛이 비추며 안개가 걷혔다. 그 도시는 거대했고 삼 사 층 높이의 집들이 나란히 퍼져 있었다.

‘저런 건물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을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무엘은 도시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지 생각했다.

숲은 도시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져.” 매튜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가야해. 강가에서는 빨리 어 두워지니 볼 수 있는 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건너가야만 한단다. 따라오렴.”

아브너가 그를 따라 배로 향했다. 사무엘도 잠시 망설이다 그의 뒤를 따랐다. 진흙 으로 된 독에 배 수백 척이 일렬로 정박해 있었다. 수풀과 작은 나무들에 묶여 대부분이 마지막 여정을 마친 듯 보였다. 물이 빠져서 칠이 벗겨진 낡은 배는 강에서 떠 내려온 진흙과 오물들로 뒤덮혀 있었다. 매튜가 아브너 보다 훨씬 더 거칠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덧 매튜가 안내한 대로 앞뒤로 칠이 잘 된 채 유지 되어 있는 20피트 길이의 배를 보고는 사무엘은 놀랐다.

배 가운데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 위로 짧은 돛이 달려 있었다. 집 자체는 두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안으로 들어가렴. 깜깜하니 조심해라.” 매 튜가 말했다. 그는 진흙 밖으로 배를 움직여 잔잔한 파도 속으로 밀어 넣으며 끄 끄 거렸다. 그리고 배에 뛰어들어 돛을 풀었다. 놀라울 만큼 돛이 깨끗했고 관리가 잘 되어있었다. 그리고는 키의 손잡이로 다가섰다.

작은 집 말고는 작은 의자도 앉을 자리도 없었지만 바람에 배가 움직이자 매튜는 양 동이를 당겨 위에 앉았다. 양 볼에 담뱃잎을 가득 물고서 씹기 시작했다. 변색된 치 아를 드러내며 사무엘에게 웃어보이고는 말을 걸었다.

“너희 엄마 아빠가 내가 구출하러 간다는 걸 생각이나 해보셨을까?”

사무엘은 아브너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모든 이야기를 매튜에게 했음이 틀림 없었 을 것이다. 아브너가 웃어 보였다.

“우린 어떤 일도 함께 해 왔어. 우리가 뭘 하는지 매튜에게 알렸던 거야. 목숨을 걸고 그를 믿어도 된단다.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말야.” 아브너가 코웃 음을 쳤다.

‘아브너는 영국군에 대항하는 거대한 연결망을 갖고 있어.’ 사무엘이 생각했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둘기, 그리고 이 배의 이 남자까지. 아브너는 사무엘이 만 난 가장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아니요.” 사무엘이 말했다. “부모님은 아마 제가 인디언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매튜가 끄덕였다. “그 때는 부모님에게 상당히 놀랄 일이었지.

그리고는 매튜가 배를 움직이는 데 집중하더니 강을 건너는 내내 말이 없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거니와 무엇을 보게 될지도, 부모님을 찾거나 찾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에 생산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적었기에 그의 생각은 그저 항해에만 몰두해 있었다.

배는 상당히 무거웠음이 틀림없었다. 나뭇잎이 물길을 따라 흐르듯 배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빠르지도 않았고 시속 삼 사 마일쯤 되는 속도로 가고 있는 듯했다. 어쨌든 이력저력 적절한 듯 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다. 바람이 배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아무도 굳이 배를 움직이려 애쓰지 않았다.

“내립시다.” 매튜가 말했다. “강둑으로 올라가시오. 마을로 가는 길은 왼쪽이오. 사탕수수 공장은 바로 0.25마일 내려가면 있을 거요. 자정에 매일 밤 자정에 이곳에 올 테니 4일째 밤 새벽 3시 까지 기다리겠소. 그때까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여길 테니. 그런데 꼬마 여자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데리고 가 가족처럼 돌봐 줄 수 있겠소?” 아브너가 잠시 머뭇거렸다.

매튜도 망설였다. “글쎄요. 에밀리가 늘 딸을 원하긴 했으니. 그렇게 하리다.”

그리고는 배를 파도에 밀어 넣어 가버렸다. 아브너가 말했다. “어서 가자.”

아브너가 독 위로 올라서자 사무엘도 뒤를 따랐다.

꼭대기에 다다르자,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다.

여저저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도시로 난 길 위에도 사탕수수 공장으로 이어지는 옆으로 난 길 아래에도 수 백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영국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병사들은 보이는 곳 마다 있었고 무장을 한 채 건물 옆을 걸어 다니며 민간인들을 강제로 거리로 끌어내고 있었다.

“공장 쪽으로 걸어가 보자.” 아브너가 말했다.

“뭐라도 물어 볼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십 마일도 채 가지 않았는데 병사 두명이 총검에 달린 소총으로 그들을 막아 세웠다. “무슨 일로 왔지?” 한 병사가 물었다.

“전 왕의 심부름꾼입니다. 강을 건너 왔습죠, 포로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왔죠. 낡은 사탕수수 공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병사들이 웃었다. “그래.” 한 병사가 알렸다. “창고와 교회에도 있지. 반란군에겐 음식을 퍼주지 말아야해. 돼지 여물 주듯 줘야 할 거야. 모두를 위해 그게 좋지. 포로들은 모두 운명이 정해졌으니.”

병사들은 웃으며 가던 길을 갔고, 아브너는 다시 사탕수수 공장으로 향했다. 사무엘도 아브너의 뒤를 따랐다. “상자로 표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브너의 놀랍게도 빠른 발걸음을 쫓아 전속력으로 달려 엄마를 향해 가고 있었다.

사무엘 바로 앞으로 소년의 엄마가 보였다.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브너의 뒤를 따라 거리를 질주할 때 어머니는 시궁창에 오물 한 바가지를 버리고 있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소년을 보고는 다시 양동이를 바라보았다. 소년은 어머니 쪽으로 재빨리 몸을 움직여 아브너를 따라 잡기 위해 서둘렀다.

그 순간, 둘의 머리가 서로의 얼굴로 핵 하고 움직였다. 서로 멍하니 서 있었고 세상은 멈춘 듯 했다.

“사, 사무엘?” 어머니는 바닥에 양동이를 떨어뜨리고 갈라지고 부르터 빨개진 손을 뺀어 사무엘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사무엘, 우린 네가 공격 때문에... 이게 정말 사무엘이니?”

사무엘은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전...우리는...” 어머니와 사무엘은 서로를 껴안은 채 울음을 터트렸다.

“떨어져, 젠장, 떨어지란 말이야. 사람들이 보고 있어. 물러서라고.” 사무엘이 말했다. 사무엘도 어머니도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어머니는 매우 마르고 핏색이 빠져 더욱 작아 보였다.

“아버지는요?”

“길 아래에 계신단다. 저 큰 건물 안에 계시지. 오래된 사탕수수 공장 말이야. 포로들로 가득하단다. 난 이집에서 일해.” 엄마가 가리켰다. “청소를 한단다. 구석에서 잠을 자고 음식 찌꺼기나 쓰레기를 먹었지. 이걸 네 아버지에게 매일 밤 갖다 주고 있어. 나도 역시 포로야. 그래도 이 집은 대우를 잘해 주고 있어서...”

어머니가 말을 멈추었다. “이마는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녜요.”

“그냥 흠이 진 거예요.”

“포로들에 대해 알고 계신 것 모두 얘기해주세요.” 아브너가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아브너를 바라보고는 사무엘을 쳐다보았다.

“아저씨가 절 도와 주고 있어요. 다 말해 주셔도 되요” 사무엘이 말했다.

“네게 무슨 도움을 주셨니?”

“시간이 없어요. 엄마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켜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야만 할 가봐 사무엘은 걱정이 되었다.

“포로들은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어. 아버진 거의 걷지도, 서 있지도 못한단다.”

“경비병들이요. 몇 명이나 되죠?” 아브너가 물었다.

“죄수들과 경비병들은 그 안에 같이 있어요. 문 앞에 두 명 있어요. 하지만 경비병 한 명은 대부분 잠을 자요. 한 명은 정문 옆에 있구요. 나오는 길은 단 하나예요. 혹 불이라도 난다면...”

“남편 분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해주시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아니면 바로 오늘 밤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을 가져가면 경비들이 음식을 검사해보고는 좋은 것은 가져가 버리죠. 양이 조금 밖에 안 되지만 가져가게 두면 될 거예요. 메시지를 숨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자정에 앞문에 있어 달라 전달하세요. 그가 시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한밤중이라 말하세요. 경비병 가까이에 숨어 있어라 전해 주시고요. 혼자서만 와야 해요. 꼭이요. 알아들으셨죠?”

“네”

“바로 여기로 자정에 빠져 나올 수 있겠어요? 자정이예요.” 아브너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럴 게요 밤이 되면 거기에는 술 취한 병사들이 많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되요. 남편에게 자정에 문 옆에 있어야 된다고 전하시고요. 당신은 이곳에 자정까지 아니면 자정이 지난 몇 분 후에 와 계셔야 해요.”

아브너와 사무엘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머니가 끄덕였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 준다면 그 다음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자, 이제 발각되기 전에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무엘, 너 괜찮은 거 맞지?” 사무엘에게 몸을 돌려 이야기 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제발, 부디 조심하렴.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 다시 널 보게 되다니. 다시는 널 잃지 않으마.”

“들어가세요.” 아브너가 속삭였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떨구며 그의 얼굴을 기억이라도 하려는 듯 사무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웃어 주었다. 그리고는 양동이를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 갔다.

## 영국의 죄수들

전쟁 동안에 버려지거나 손상된 최소 열여섯 척의 거대한 영국선체들이 감옥으로 뉴욕 시의 해변 가에 떠 있었다. 만여 명이 넘는 죄수들은 굶주림이나 치료받지 못한 질병과 같은 고의적인 방치로 인해 죽었다. 죄수들의 죽은 사체는 같은 죄수들이 배 밖으로 던지거나 해안가 얕은 무덤에 매장하기도 하였다.

## 제 17장

어둠이 왔다. 소가 죽기 전처럼 구름이 가려진 은빛 달이 보였고, 부드러운 빗방울도 내렸다. 밖의 모든 것들 적시어 언짢아 질 만큼 비가 왔다. 하늘이 보내주신 거였다. 술 취한 병사들도 빗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아브너와 사무엘은 사탕공장을 살펴 보기 위해 나갔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해준 말은 정확했다. 문은 하나만 쓰이고 있었고, 경비병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었다. 한 병사는 의자 앉아 있었다. 입구에는 비를 막아주는 작은 지붕도 있었다.

건물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안에 수백 명으로 가득차 있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거라 사무엘은 생각했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비병을 지나 아브너와 사무엘은 건물을 따라 내려갔다.

여기저기서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와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뿐이었다. 건물을 완전히 지나쳐 나와 길을 건너 다른 쪽으로 돌아왔다. 비 때문에 길가에는 병사가 많지 않았고 아브너와 사무엘을 신경 쓰는 사람들도 없었다. 강을 따라 매튜를 만났던 곳과 가까운 지점까지 내려갔다. 강 쪽 옆으로 난 나무들 속으로 움직였다.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아브너가 기름을 머금은 작은 자루 하나를 코트에서 꺼내고 시계를 바라봤다. 일곱 시 삼십분이야. 시계를 다시 집어 놓고 나무 밑에 기대어 자리를 잡고 서는 외투의 깃을 구부렸다.

“잠을 좀 자두렴, 오늘 밤 이후부터 잠을 잘 수도 없을 테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물었다. “아버지를 빼 내올 건가요?”

“계획은 간단할수록 좋지.” 아브너가 대답했다. “계단 주변에 벽돌을 모두 보았니? 그 곳이 새로 만들어진 곳이라면 아마도 현관이 하나 이상일 거야. 벽돌이 다 무너지면 경비병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되니 그 때 넌 벽돌 하나를 집어서 경비병의 머리를 내려치면 돼.”

“그게 아저씨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 경비병이 둘 다 있다면요?” 사무엘이 아브너를 바라보았다.

“난 준비 다 되었어. 넌 네 할 일만 하면 된다.” 아브너가 말했다.

소년은 계속 아브너를 노려보고 있었다. “여기 이곳 멀리까지 와서 아저씨는 고작 벽돌로 머리를 내려치라고 말하시네요?”

“세게 쳐야지.” 아브너가 덧붙였다. “경비병의 머리를 아주 세게 내려치렴.”

“그리고는 우리가 문을 열어 아버지를 잡아끌고는 죽여라 달릴 거란다.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할 거야. 어머니를 데리고 배에 올라타야 해. 허드슨 강을 건너가 노새를 마차에 달아 타고 가는 거지. 훌륭하고도 간단한 계획이야.”

결국 아브너의 계획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거의 그랬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게 놀랐다. 아브너가 기대어 있는 나무에 사무엘도 기대어 까닭 없이 한 시간 정도 이 생각 저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하얀 장막이 소년의 머릿속으로

스며들어 오더니 잠이 들었다.

“자 거기서 가보자.” 자정이 가까워지자 아브너가 소년을 흔들어 깨웠다. 사무엘은 얼굴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브너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사무엘이 따라 잡으려 서둘러 갔다. 길은 어머니가 이야기 해준 대로 어머니가 일하는 집을 지나 있었다. 어머니는 미리 밖에서 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돌이 가까워지자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함께 갈게요. 저도 도와야 하니까.”

“아니요.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아브너가 속삭였다. 사탕수수 공장에 가까워지자 보따리를 나르는 듯 보이도록 아브너가 외투를 벗어 감았다. 경비병 가까이 있는 등불에서 작은 촛불 빛이 나오고 있었다. 은색 빛이 밖으로 나오는 틈도 있었다.

사무엘이 벽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빛이었다. 경비병의 구역으로 움직이기 전에 하나를 집어 들었다.

“멈춰!” 돌을 보자 경비병이 소리쳤다. “목적을 밝혀라” 사무엘은 벽돌을 숨겼다.

“포로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왔어요.” 보따리를 들고서 아브너가 말했다.

“전진” 보따리에 관심을 보이며 경비병이 앞으로 향했다.

경비병들이 입구의 계단을 올라섰다. 경비병 앞의 아브너와 벽돌을 쥔 사무엘이 살며시 움직였다.

아브너가 보따리를 꺼내었다. 경비병은 총의 개머리를 바닥에 두고 한 손으로 그것을 열어 보았다. 그가 몸을 숙이자 아브너가 대화를 하듯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 했다. “사무엘, 지금이야.” 그러자 사무엘이 경비병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다. 아주 세게 내리쳤다. 머뭇거린 순간 경비병이 고꾸라 졌다. 아브너가 그를 잡고 문쪽으로 밀어 두었다. 바닥에 경비병을 눕히고는 문으로 갔다. “잠겨 있어” 그가 욕을 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경비병의 벨트에서 키를 꺼내어 문을 열었다. 자물쇠는 내동댕이 쳐 버렸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입구에 있었다. 얼굴은 해골 같고 눈은 파래져 있었다. 사무엘의 팔에 쓰러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다. 삼 사십 여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사무엘과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도 쏟아져 나왔다. 메추라기 떼가 흩어지듯 시체처럼 깡마른 포로들이 줄지어 나왔다. 이상하고도 고요한 우리에서 쏟아져 나와 이리저리 흩어졌다.

“나오세요.” 아브너가 사무엘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시간이 없어요.” 사무엘과 아브너가 아버지를 양쪽으로 부축해 발을 끌게 하고서는 어둠을 통과해갔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다가 서둘러 도움을 주었다. 어두워서 두 번이나 넘어졌지만 배와 함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속도를 올려 가능한 빨리 움직였다.

매튜가 보이지 않았다.

“강둑에 가서 찾아 볼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아브너가 말했다. 그가 오기 전까지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흘렀다.

“없어. 하류로 가서 확인해 볼게.” 셋이 말없이 서 있는 동안 다시 끝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아브너가 고개를 저으며 모습을 보였다.

“매튜 아저씨가 확실히...” 사무엘이 묻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물가로부터 나오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매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야 여기! 오는 길에 바람이 한 바탕 불어대는 바람에 하류까지 떠내려가 버렸어. 다시 돛의 위치를 바꿔야만 했지. 이쪽이야.”

그들은 일 피트나 되는 물속에서 거의 느낌으로만 배를 찾았다. 사무엘은 한쪽으로 아버지를 들어 올려 배에 실었다.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배위로 모셔 주세요. 제발 부탁 드려요.”

매튜가 사무엘의 아버지를 배 위의 오두막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의 어머니를 배 위로 올려 집으로 들여보냈다. 아브너가 뛰어 올랐고 매튜가 돛을 당기자 상쾌한 바람이 돛을 채웠다. 사무엘에게 말했다. “멀리 물러났다 배에 올라타” 사무엘이 뒤로 물러섰다. 발을 헛디뎠다. 진흙과 물속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배를 놓쳐서 소년에게서 멀어졌다. 달려들어 뱃머리를 잡았다. 배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사무엘은 몸을 끌어 당겼다가 밀어 넣었다. 아브너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총소리, 또 한발의 총소리. 사탕수수 공장부근에서 횃불이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네가 경비병을 세게 내리치지 않아서 그래.”

“전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경보를 울렸겠지.”

“문제 될게 전혀 없어.” 매튜가 말했다. “저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니 횃불이 여기까지 비치진 못할 거야. 게다가 사방팔방으로 뒤지고 있으니 말이야.”

“사람들이 동시에 무더기로 나왔어. 이리저리 사라져버렸어.”

아브너가 한 숨을 쉬며 뒤 쪽으로 몸을 기대어 젖혔다. “다행이었어.”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오지.” 매튜가 말했다. 양동이 옆에 앉아 천으로 감싼 보따리를 꺼내었다.

“에밀리가 쇠고기 샌드위치와 럼주가 들어간 우유를 보냈어.”

“술이라고요? 우유와 럼주?” 사무엘이 물었다.

“피를 뜨겁게 해주고 소화를 돕지. 넌 못 마시겠지만 아버지는 드실 수 있겠지. 자, 여기 이걸 오두막 안으로 가져가 건네라. 천천히 마시라고 전해드리렴. 안그럼 죽을 수도 있단다.”

사무엘이 꾸러미를 받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웠다.

“엄마, 아빠?”

“여기야.” 어머니가 말했다. 소년의 팔에 손이 닿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여기 있단다.” 아버지가 말했다. “사무엘 널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하단다.”

사무엘이 웃었다. “난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아들아. 네가 살아 있을 줄 꿈에도 몰

랐다. 하물며 대담한 행동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었잖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손을 잡으세요.” 사무엘은 보따리 안을 더듬어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었다.

“매튜가 음식을 가져 왔어요.” 소년은 허공에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손 하나가 그것을 움켜잡았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먹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드세요. 안그럼 매튜가 죽을 수도 있겠어요.” 소년은 보따리 안에서 작은 뚜껑이 덮힌 항아리를 꺼내었다. “따뜻한 우유와 럼주를 섞어 만든 거예요. 음식을 잘 내려가게 해준다고 들어요.”

어둠 속에서 항아리를 꺼내면서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그것을 받는 어머니의 손이 느껴졌다. “여기야” 어머니가 말했다.

“받았다. 사무엘, 저 남자들은 누구니? 너무 많은 빛을 쬐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데 말이야.”

매튜와 아브너는 서로 친구예요. 매튜가 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가는 길에 아브너를 만났어요. 아, 그리고 맞다. 엄마에게 딸이 생겼어요.“

“뭐라고?”

“우리가 마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거기서 그 애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애 이름은 애니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도망치는데 일원이기도 하구요.” 사무엘은 잠시 동안 애니에 대해 이야기 했다. 너무 끔찍해서 말로 할 수 없었기에 헤시안의 공격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어머니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음식을 씹는 것을 멈추어 삼키고는 럼주와 섞은 우유를 마셨다. “음식이구나. 음식은 말이야. 한 동안 먹지 못하면 그 동안 먹어 본 것들처럼 달콤한 맛이 난단다. 매튜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라.”

“별 말씀요.” 욱 피트 떨어져 있는 키의 손잡이 쪽에서 매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드셨다고 에밀리에게 전해드리지요.”

“좋은 삶든 인생이잖소”

“그럼요.”

“그렇지만 죄책감이 느껴지네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 우리에게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었지만 난 먹을 것을 얻었잖소.”

“그게 그런 상황인거죠. 전쟁의 상황이랄까요. 누군가는 얻고, 또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전쟁의 방식인 거죠.”

“가혹하네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죠.” 아브너가 한숨을 쉬었다.

그 때문에 강을 건너는 내내 침묵이 흘렀고, 배의 한쪽으로 물이 찰싹 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만 적막이 깨졌다.

## 전쟁 포로의 처우

갑판 아래 죄수들에게는 하루 단 한 컵만의 물이 주어졌다. 고작 아침에만 주어지는 배식은 영국 병사들이 그것의 반을 차지해버려 먹을 것이 없었고, 오래되고,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대부분 썩어있었으며, 영국에서 온 음식 찌꺼기들도 있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포획자들이 포로들의 보급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혁명 전쟁 동안에 아군과 정부와 각 가정들이 포로에게 보급품을 공급해주고자 애썼다.



## 제 18장

강 반대편에 다다르자마자 아브너의 마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사무엘은 아브너의 숯덩이 옆으로 애니가 몸을 웅크려 잠이 든 것을 보았다.

“애니야” 애니를 깨우려 어깨를 두드렸다. 애니가 눈을 떠 소년의 팔에 몸을 기대었다. 애니의 무게 때문에 사무엘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자 부모님에게 고개를 돌렸다.

“애가 애니예요.” 사무엘이 말했다.

어머니가 팔을 뻗어 애니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애니, 난 항상 딸아이를 원했단다.”

“엄마가 생겼네요.” 애니가 사무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만 아니었지요.” 눈물이 흘러나오자 소녀가 수줍게 웃어 보였다.

“너도 엄마가 다시 생겼고.” 사무엘의 어머니도 눈물을 보이며 속삭였다.

“아빠도 생겼지.” 아버지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아브너가 헛기침을 하고는 랜턴 틈새로 나오는 빛 아래서 노새를 마차에 연결하기 시작했다.

“강 이쪽으로는 보초병들이 있어요. 한 동안은 북쪽 큰 길로 다니세요.” 그가 천 더미를 건네며 말했다. “에밀리가 가져갈 음식을 싸주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무탈하기를 빌겠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다시 삶을 되돌려 주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말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하는 법입니다.” 매튜가 말했다. “전 이제 배로 돌아가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동이 뜨기 전에 찾아가야 할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는 등불의 희미한 빛에 의존한 채 매튜는 길을 떠났다.

“이제 사무엘만 빼고 모두 마차 안으로 들어가세요. 사무엘, 넌 여기에 와서 나와 함께 가야겠구나. 할 말이 있단다.”

사무엘은 부모님과 애니를 마차에 태우고 마차 앞으로 가 의자 위로 올라앉았다.

적막 속에서 아브너가 혀를 차는 소리를 내자 노새가 길에 마차를 멈추기 시작했다.

강 너머의 떠들썩한 소리에도 이쪽 편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삼십 분도 넘게 말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노새도 사무엘도 고양이라도 되는 듯 어둠 속에서 길을 내다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여기저기 흔하게 나있는 둔덕만 빼면 수월한 편이었다. 비가 조금 누그러졌고 마차 안에 있는 사무엘의 총과 화약도 덜혀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우린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아브너가 갑작스레 얘기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죠?” 사무엘이 놀라며 물었다.

“너무 위험하구나. 우리가 여기서 공격을 받았더라면 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었겠지. 이젠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 무나. 쉽지는 않을 거야. 부모님에게 문

제가 생길지도 모르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내게 통행권이 있어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 갈까 두렵단다. 우린 반드시 갈라져야 해.”

“이해해요.” 사무엘이 말했다. 어두워서 아브너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다해 주셨어요. 그 이상을 도와주셨잖아요.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적도 없는데. 다시 찾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한단다. 이제 여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우린 이 길을 따라 세 시간을 더 갈 거란다. 대략 4시간 정도 되겠지. 숲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정도면 네가 엄호하기 충분한 시간이야. 그때 넌 나를 떠나서 서쪽으로 아마 두 시간 아니면 세 시간 동안 쪽 가야 한단다. 아버지는 당분간 속도가 더딜 게다.”

“거기서 큰 습지가 보일 거야. 그 곳에 진입하기 전에 왼쪽으로 돌아 필라델피아가 있는 남쪽 방향으로 가렴. 거긴 안전하단다, 마을에서 약 7일 정도 이동하게 될 테니. 자 이것 받으렴.”

어둠 속에서 아브너 사무엘에게 무엇인가를 건넸다. 항동으로 된 작은 시계 같은 물건이었다.

“나침반이란다.”

“아저씨가 필요한 물건 아니에요?”

“받으렴.”

“고맙습니다.”

“남서쪽이야.” 아브너가 강조했다. 칠일을 걸어야 해. 팔일이 될 수도 있고. 필라델피아까지 거의 구십 마일이란다. 도움이 될 만한 숲을 찾게 될 거고. 네 아버지가 회복되면 넌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게다.”

사무엘은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은 나쁜 소식인 듯하구나.” 아브너가 말했다. “그 곳으로 이어지는 어딘가는 아무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 듯 한곳이야, 한동안은 트렌텐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여겨졌어도, 곧 영국의 방어선이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지. 너조차도 자신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지도 몰라. 그러다 영국군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영국군들은 조금 신경질적이어서 아마 얘기도 하기 전에 총을 쏘버리겠지. 그러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 계속 남서쪽으로 가야한단다. 큰 길 옆 남쪽으로 빠져서는 안돼. 거기가 영국군이 있는 곳일 거야.”

‘남서쪽’ 아브너가 가르켜 준 것을 외우느라 사무엘은 말이 없었다. “감사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 사무엘이 인사를 했다.

“그걸로 충분 한 것 같구나. 이제 에밀리가 무슨 음식을 담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가능한 지방이 많은 부분을 드리렴. 지방 덕분에 힘이 나오는 것이지. 고기와 지방 말이다. 아마 너구리가 적당하거나 가능하다면 곰도 괜찮겠지. 두꺼운 고기여야 한다. 구십 마일을 걷는 건 아버지에게 힘든 일이 될 거다. 인내심을 가지렴.”

“네 그럴게요.” 다시 사무엘이 끄덕였다.

“어머니도 또한 잘 챙겨드려야 한다. 매우 강한 분이지만 이번엔 다르잖니. 부모님이 어른들이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끌어 나가야 해. 부모님은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담요를 좀 더 챙겨두렴” 노새가 타가닥 타가닥 걷는 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 빼고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을 뿐더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후, 사무엘이 개에게 있었던 하얀 표시가 무엇이었는데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아브너가 노새를 멈춰 세웠다.

“여기서 나가서 습지가 있는 곳 그리고는 남서쪽이라는 걸 명심하렴.”

“네, 정말 감사해요.”

“그만하고 어서 가렴.”

사무엘이 마차에 올라타 뒤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브너가 그들에게 떠나라는 손짓을 했다. 애니가 잠이 절 깬 채 마차 뒤에서 나왔다. 사무엘은 음식과 두 개의 보따리를 챙겨 하나는 어머니에게 나머지 하나는 애니에게 건넸다. 그리고 소년은 담요를 침낭에 묶어 어깨에 걸쳤다. 총과 화약통을 두고 총의 삼각창의 기폭제를 점검하고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했다.

“됐다” 사무엘이 말하자마자 아브너가 노새를 바라보며 혀를 짹짹 찔었다. 그러는 사이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감사하단 말도 못했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이젠 얘기해선 안돼요. 나중예요. 이제 움직여야 하니까요. 아버지,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래, 아마 좀 천천히 걸어야겠구나.”

“그래요, 뒤 따라 오세요. 다시 한 번 얘기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돼요.

사무엘은 바로 길을 나섰다. 숲을 빠져 나오고 나서 무기력한 며칠을 마차에서 보냈다. 몸 멀미에 넉더리가 났고, 움직이고 싶어졌다. 움직여야만 했다. 소년은 마차에서 내려 경중경중 달려갔다.

둘이 함께 속도를 맞추어 걸었을 때처럼 애니가 사무엘의 속도를 따라잡았다.

삼십 야드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사무엘, 난 안되겠구나” 어머니도 숨이 차올라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불평 없이 아버지를 부축하려고 애썼다. 사무엘이 속도를 낮추고 잠시 쉬기 전에 길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일 마일을 더 움직였다. 태양이 수평선 가까이에 와 있었고 구름을 통과해 이곳 저곳을 비추기 시작했다.

소년은 작은 빈터에 멈추어 섰다. 침낭을 풀고 마차 위에서 며칠 동안 신고 있던 모카신을 벗었다. “아버지, 이것 신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도 나지막하게 속삭였지만 사무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돼요. 두 시간정도 더 가세요.” 소년은 계속 속삭이며 이야기 했다.

“애니, 난 앞에서 걸을 테니, 넌 뒤를 맡아줘. 내가 멈추면 모두 멈추어야 해요. 그

리고 내가 몸을 숙이면 모두들 같이 숙여야 해요. 다시 한 번 더요. 소리는 내서는 안 되고요. 애니, 사 오십 보마다 귀 기울여 주시해야해. 만일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휘파람을 적당히 불어줘. 그러면 우리가 멈출 테니까. 내 말 알아들었지?”

“그래.” 어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이제 부터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하셔야 해요. 애니가 사무엘에게 웃어 보이자 자신의 손을 소녀의 어깨에 두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두 세 시간 정도 속도를 맞출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럴 거다.”

“좋아요, 그럼 이제 가죠.”

사무엘이 앞장섰다. 이번에는 좀 더 속도를 낮추어 가능한 조용하게, 산마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둘러 봤던 사냥 길을 따라 이동했다.

사슴에서 오십 보를 걸을 때 마다 애니를 위해 멈춰 섰다. 사무엘은 귀 기울여 살펴보고, 누가 쫓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부모님과 애니는 길을 따라 움직였고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걸었다.

습지 가장자리가 사무엘의 눈앞에 보였다. 소년은 좀 더 높고 마른 땅에 있는 또 다른 빈터를 찾아 보따리의 음식을 꺼내 모두 앉으라고 이야기 했다.

사슴고기 조각이었지만 거의 지방이 없는 부위였다. 작은 머핀으로 만든 옥수수 빵도 꺼냈다.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돼지기름도 들어가 있었다. 식구들을 먹이며 사무엘은 먹는 시늉을 하다 다시 내려놓았다.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었고 뭇가를 사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아껴서라도 먹을 음식이 식구들에겐 필요할 것이다. “괜찮아.” 소년은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잠깐, 몇 분만 쉬었다가 다시 남서쪽으로 갈 거예요. 물어볼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단, 작은 소리로요.”

“머리는 어쩌다 그런 거니?” 아버지가 물었다. “그 휴터 말이다.”

“손도끼에 맞아 생겼어요.” 사무엘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끔찍 했던 일은 제외했다. “우린 널 봤단다. 보구 말구.” 어머니가 말했다.

“빈터 반대편에서 총성이 시작될 때 말이야.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사무엘 너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네가 총을 쏘는 순간 널 보았단다. 네가...총을 쏘을 때...”

사무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쏘어요. 인디언 하나가 쓰러졌고 다른 인디언이 나를 방망이로 내리치니 저도 쓰러졌죠. 엄청 빨랐어요. 순식간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도와준 쿠파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며칠 동안 비명을 질렀던 남자의 이야기는 생략했다. 헤시안에 대한 얘기도 접어두고 케일럽과 마에 대해 말하며 지난 모든 일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년 고작 13살이잖니”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나중에 다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아브너가 한 얘기만 말 할게요.”

그리고는 사무엘은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필라델피아의 상황과 영국군의 생활에 대해 전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사무엘은 일어나 소총을 집어 들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 종일 걷게 될 거예요. 개울이 보일 때 마다 가능한 많은 물을 마셔두셔야 해요. 물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물을 마시면 배가 차서 덜 배가 고프게 될 거란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애니, 너 뒤로 가. 난 앞을 맡을 테니. 얘기하면 안 돼. 아주 작은 소리로만 해.” 그리고는 소년은 길을 나섰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을 까봐 두려웠다.

소년은 종일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매 순간 나침반을 확인하며 작은 개울과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종종 멈추기도 했다. 한 시간 혹은 삼십분 마다 조용한 휴식을 짧게 가졌고, 이른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습한 저지대에 나와 있는 작은 봉우리에 이르게 되었고, 사무엘은 서쪽을 등지고 멈춰 서서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불은 안 돼요.” 사무엘이 조용히 말했다. 불 없이 야영을 해야 해요. 배가 부를 때까지 식사를 하세요. 아버지, 엄마, 애니야. 이걸 살짝 아래로 내려줘. 나는 가서 뒷 산길은 확인해 볼 테니, 여기서 기다려요.”

소년은 함께 왔던 길을 다시 빠른 발걸음으로 걸어 돌아갔다. 소리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반마일을 더 가서 어떤 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는 식구들을 두고 온 곳으로 향했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와 애니는 담요로 된 침낭을 두른 채 졸고 있었다.

“여긴, 괜찮아요.” 총을 무릎 위에 대고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잠을 좀 자려 무나.” 어머니가 사무엘을 살폈다.

“이제 아주 달라졌구나. 벌써 다 컸어.”

“아니예요. 전 변한 게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이 변한 거죠.”

“아니야. 사무엘 넌, 달라졌단다. 나쁜 뜻이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넌...말이야. 세상을 알게 되었고 보는 눈도, 생각도 달라지게 된 거야. 엄마가 널 몰랐다면 네가 변했다는 것조차 몰랐겠지. 그건 말이야. 네가 먼 곳으로 떠나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은 거란다. 엄마가 사랑했던 예전의 네 모습만큼이나 변한 네 모습이 참 좋아. 네가 함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엄마 아빠를 이끌어 주어서 매우 행복하고 감사한단다.” 어머니는 사무엘의 손을 잡았다.

“주무세요, 엄마.”

“잘 자렴, 아들이야.”

## 영국인의 행동

영국은 군사를 동원해 미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정책 보다는 후에 '총과 검'이라고 알려진 전략을 채택하면서 이 나라를 갈라놓았다.

즉, 반란군을 회유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그들의 마을과 창고들을 파괴하고, 농장과 가축, 곡식을 약탈하기도 하고 불태워 버리기도 했다.

법이나 정의 혹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인간의 행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가게와 가정을 막론하고 강탈했다.

## 제 19장

첫 날 밤은 모두 밤잠을 설쳤다. 특히나 사무엘은 더욱 그랬다. 소년은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음날이 되자 그 느낌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저녁이 되니 다시 그 생각에 빠져 들었다.

에밀리가 보내준 음식은 적당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기름진 고기가 필요했다. 사무엘은 너구리를 저녁으로 사냥해 오리라 마음먹었다. 다행이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스스로에게 총 한방이라도 허락 할 수 있었다. 재수가 좋아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식구들은 남서쪽으로 난 높이 많은 지역을 걷고 있었고 너구리에겐 안성 맞춤인 곳이었다. 소년은 곳곳에 난 너구리 흔적을 보았다.

소년은 식구들을 쉬게 하고 서쪽으로 팔 마일을 더 이동해 갔다. 오십 야드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새끼 두 마리와 작은 어미 너구리를 보았다. 사무엘이 원했던 것들은 아니었지만 어미를 에워싸며 몰았다. 이십 분이 안 되서, 드디어 큰 참나무 중간 정도 높이에 옆으로 뻗어있는 가지 위로 큰 야생 흙 너구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무엘이 찾고 있던 것이었다.

너구리의 오른 편으로 소년이 움직이자 숲 서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구리 머리를 조심스럽게 겨냥해 총을 쏘자 그 놈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사무엘은 너구리의 내장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산짐승들 먹이로 남겨 두었다. 곰 간을 먹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너구리와 곰이 고기로는 비슷하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구리의 간도 먹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한 노인이 한번은 자기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곰과 너구리 간을 먹으면 속이 괴로울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하려 했다.

식구들에게 돌아가서 너구리 가죽을 벗기어 마른 장작으로 작은 불을 피웠다. 고기 반 파운드를 굽자 기름이 푹푹 떨어져 나왔다. 고기가 익자 사무엘은 재빨리 불을 껐다. 아버지께 고기 몇 그릇을 먹데 한 뒤 어머니와 애니와 같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댔다.

앞으로 이틀이나 사흘간 아버지께 드릴 고기를 따로 두어 보관했다. 그제 서야 식구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특히, 애니에게서 붓물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말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애니가 사무엘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고개를 저었다. 입가의 기름기를 닦아내고는 소총을 들어 숲 길 속 0.25마일을 다시 걸어 들어갔다. 산길 옆 개암나무 수풀에 자리를 잡아 밤새 졸며 망을 보았다. 총소리 때문에 걱정이 된 나머지, 총을 쏘을 때 났던 화약 냄새도 산들 바람에 실려 몇 마일을 퍼져 나갈 가봐 또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소년은 걱정 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따라 오지 않았고 새벽에는 식구들에게 돌아가서 자고 있는 그들을 깨웠다. 식구들을 숲 안으로 먼저 들여보낸 뒤, 변소

가 없었기 때문에 망을 보게 했다. 그리고는 다시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식구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네 번을 멈췄고, 소년은 그 때마다 아버지에게 너구리 고기를 더 드시게 했다. 남은 이들은 에밀리가 싸준 사슴고기와 옥수수 빵 남은 것들을 먹었다.

정오 즈음 되어 다시 산길을 떠났다. 남쪽으로 갈수록 산길이 밝혀 다져져 있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울창한 숲이 있었다. 아름다운 녹색 터널 속을 걸었다. 이제 사무엘은 동서로 이어진 산길까지 이르렀다. 서쪽을 향해 걸었다. 이 길은 훨씬 더 뻑뻑한 숲이었고, 마차와 수레바퀴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는 길을 두 번이나 지나가야 했다. 사무엘은 겁이 났다. 바퀴자국이 매우 널찍하게 나 있어서 식구들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특히 더 조심스러웠다.

소년은 멈춰서 열 박자, 이십 박자, 삼십 박자를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달려가게 했다. 다음 사람을 차례차례 보내기 전에 장시간 걸쳐 기다렸고, 귀 기울여 지켜 보다 마침내 사무엘의 차례가 되었다.

사일 째 되던 날 느린 속도로 걸어갔음에도 하루에 십오 마일 가까이 걸었다고 사무엘은 생각했다. 조금 더 문명화 된 듯 보이는 지역에 이르렀다.

여전히 숲이 있었지만 동쪽으로 벗어난 여기저기에 농가가 있었다. 더 넓게 벌채된 지역은 피하려고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더 커져가고 있었다. 바퀴 자국이 두 배나 많은 길이 꽤나 자주 보였고, 여기저기 통행이 잦아 보이고, 손으로 평탄하게 고른 평평한 좋은 길이 있었다.

일행은 사일 째 되던 날, 해가 저물어 가자 그 길에 당도했다. 날씨가 화창했고 거의 저녁이었지만, 휴식을 취하다 곧 저녁이 되어서 그곳에 머무를 것이란 걸 알았다. 사무엘은 산길이 갑자기 구부러진 부분을 돌아 고민하지 않고 길 위를 걸어 나갔다.

영국 기병마의 뒤 쪽에서 이 피트정도 떨어져 있었다. 말에 탄 남자는 장교였는데, 길 다른 쪽 덩불을 살피고 있었다. 장교의 말도 뿔가를 살피듯 귀를 쫓긋 세웠다. 장교가 검을 뽑아 비스듬한 각도로 검을 내려놓았다. 준비를 했다. 장교의 왼쪽으로는 말에 탄 다섯 명의 남자들이 더 있었는데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똑똑히 살피고 있었다. 머스킷 총을 장전하고 검은 칼집에 꽂아 두었다.

일초, 이초가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사무엘을 알아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지해 있고 이치에 맞게 제어된 짧은 순간이었다. 그 이미지는 그의 남은 일생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 같았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 모두가 말에 타고 있었고, 모두 길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생존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혼란이 일어났다.

붉은 뺨의 젊은 청년이 사무엘을 포착하고서는 몸을 틀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치며 자신의 총을 사무엘에게 겨누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무엘도 총을 들어올려 공이치기를 쫓았다.



소년과 젊은 청년 어느 한쪽이 총을 발사하기도 전에, 장교가 말을 타고 달려와 사무엘을 쳐 눕히더니 자신의 검을 사무엘에게 내리쳤다. 사무엘이 장교에게 총을 겨누어 발사하자 탄환이 그의 턱 바로 아래를 지나쳤다. 장교가 총에 맞아 나가떨어지며 휘둘린 검이 사무엘의 어깨 끝에 닿았다. 소년은 등 뒤로 아버지가 나무숲에서 달려 나오는 것을 느꼈다.

“오지 마세요!” 사무엘이 소리치자 다른 병사들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천둥소리가 들리듯, 미쳐버린 전쟁의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길 반대편에서는 연기와 화염의 귀청을 떨어지게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말을 탄 사람들이 덩불 속으로 떨어져 나갔다.

죽어나갔다. 반란군이 총을 발사했다.

말 두 마리가 총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덩불 사이로 휘청 거리며 쓰러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무엘은 아버지가 팔에 기대어서서 총을 다시 장전했다.

반란군도 총을 재장전하여 영국군들이 도망친 길을 따라 쫓아갔고 부상당한 말도 죽여 버렸다.

덩불 사이로 열댓 명의 남자들이 나와 죽은 영국군의 시체를 확인하자 적막이 흘렀다. 사무엘은 자신이 죽인 장교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인디언들과의 싸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순전히 반사작용이었을 뿐이었다. 신속하게 끝이 났다.

장교의 죽음 때문에 사무엘은 괴로웠지만 장교의 칼이 자신을 향해 다가왔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파란 대륙군 제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사무엘에게 다가왔다. “난 중사 휘트비라고 한다. 필라델피아의 서티스 풋에서 왔어.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니?”

사무엘은 그의 뒤쪽으로 희미한 움직임을 보았다. 엄마와 애니가 덩불에서 나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다.

사무엘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자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죽은 장교를 계속 바라보았다. 땅 가까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그의 긴 갈색머리가 흔들렸다. 아직도 장교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 아마도 내가 진짜 죽인 게...’ 사무엘은 생각했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우리는 포로들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라델피아로 가는 중이었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뉴욕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었는데 제 아들 사무엘이 저희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 아인 제 딸 애니라고 합니다.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휘트비가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피터와 도날슨, 말 네 마리를 데려오게. 이분과 아내 분, 딸을 말에 태우고 나머지 장비들과 총, 검 등을 드리게나. 나머지 너희들은 길가에 시체들을 정리하도록.”

그러고는 휘트비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는 매복공습을 해서 한 두 명의 포로를 데리고 가서 뉴욕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난 것 같군요. 뉴욕에서 오셨으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어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휘트비가 사무엘에게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건넸다. “걸어가는데 이의가 없겠지?”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병사들이 죽은 장교의 시체를 다른 시체들과 함께 덩불 밖으로 꺼내어 끌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병사들은 말에 짐을 싣고,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안전함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사무엘은 뒤에 남아 자기 총에 몸을 기대어서서 구부러진 길에서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 났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 질주, 광기, 나뭇가지 하나마다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뭇잎 하나에도 걱정을 했었다.

소년의 부모님도 애니도 이제 안전해 질 것이다. 사무엘은 엄청난 큰 짐을 벗게 되었다. 그러자 ‘이제 안전해 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이 났다.

하지만 소년은 여전히 망설이며 길을 따라 나서길 주저했다. 젊은 병사가 종종걸음으로 다시 소년에게 다가와 오라는 손짓을 했다.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총을 집어 들고는 앞서간 이들을 따라 잡으려 걸음에 속도를 내었다.